

민들레

바람에 날려 또 다른 민들레를 피어오르게 하는 그 날까지

광장종합사회복지관

‘2020 하계방학 사회복지 현장실습’

실습생

박영탁 · 백다을 · 송아영 · 이민지 · 이순호

주요섭 · 주은서 · 최예은 · 홍현기 · 황희원

.

사회복지사

김태권

광장종합사회복지관

기록한 순서

들어가는 말, ‘봄의 시작’

I. 시작, ‘민들레 씨, 바람에 날다.’ 001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박영탁 · 백다을 · 송아영 · 이민지 · 이순호

주요섭 · 주은서 · 최예은 · 홍현기 · 황희원

II. 동행, ‘뿌리를 내리다.’ 031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박영탁 · 백다을 · 송아영 · 이민지 · 이순호

주요섭 · 주은서 · 최예은 · 홍현기 · 황희원

III. 마무리, ‘피어날 그 날을 꿈꾸다.’ 063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박영탁 · 백다을 · 송아영 · 이민지 · 이순호

주요섭 · 주은서 · 최예은 · 홍현기 · 황희원

IV. 너에게, 내가 095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박영탁 · 백다을 · 송아영 · 이민지 · 이순호

주요섭 · 주은서 · 최예은 · 홍현기 · 황희원

V. 다음의 봄을 기대하며 117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지역조직팀 사회복지사 김태권

들어가는 말, ‘봄의 시작’

송아영

“사람을 생각하고 마땅함을 행하는 뜻 있는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우리들의 시간들”

이민지

“지금부터 시작되는 10명의 실습생들의 민들레 성장이야기”

주요섭

“관계와 가치를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

이순호

“이 글을 보신 분들 모두에 전하고픈 행복을 담아”

주은서

“단 ‘하나’이기에 특별한 ‘우리’들의 이야기”

최예은

“이번 실습 경험으로 각자의 민들레로 피어나는 그 날을 위해”

홍현기

“다양한 경험을 쌓고 배움을 얻으며 성장하고픈 시간 속의 이야기”

황희원

“시작은 서툴지만, 마지막은 뜻 깊은 나날로 성장하는 이야기”

박영탁

“이 과정을 잊지 않고, 사회복지사가 되는 그날의 우리에게”

백다을

“그날의 우리에게, 그날을 기억하며”

I. 민들레 씨, 바람에 날다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박영탁 · 백다을 · 송아영 · 이민지 · 이순호
주요섭 · 주은서 · 최예은 · 홍현기 · 황희원

목표를 위한 첫걸음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박영탁

기대하고 바라던 광장종합사회복지관에서의 실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롭기도, 낯설기도 한 환경은 나의 적응력이 어느 정도 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첫 주는 출·퇴근 시간, 다소 분량이 있는 과제가 나를 힘든 상황으로 이끌었고 정신력을 키워 실습에 최적화 된 몸으로 만들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정말로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재미있다고 느끼니 버틸 수 있었습니다. 재미와 힘듦은 비례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현장실습에서 함께 할 동료들은 나에게 본보기가 되고 영감이 되어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학교와 환경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열정 하나로 모이게 된 우리 10명의 실습생들은 매일을 함께 지내며 어색한 관계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지식, 감정 등을 교류하는 진정한 팀이 되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만나게 되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실습생들을 지도하는 실천현장의 선배로서 현실적이고 진심 어린 조언들을 통해 우리가 자조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며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임하며 서로 간의 소통을 통한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지속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하게 됩니다.

첫 주의 실습의 과정에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학교에서의 이

론적 배움, 그리고 현장실습을 통한 실천현장의 직접적인 경험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접한 사회복지에는 이론 그 자체를 다루며 이론에서 추구하는 사회복지에서의 이상적인 지향점들을 중점적으로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주일간 접한 실천현장의 경험은 오직 이론만으로는 실천현장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접 체감하는 다양한 당사자의 욕구, 개별화, 사회복지사로서 필요한 서류작성 능력과 서류의 양,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고려해야 하는 수많은 변수와 상황 등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생각한 것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들이 결코 쓸데없는 것이 아닌, 같고 닮은 탄탄한 이론과 실천현장의 경험 및 실무능력이 합쳐져야 유능한 사회복지실천가가 될 수 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경험과 배움을 대충 여기저기 않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미래의 사회복지실천가로서의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반을 쌓고 싶습니다.

현장실습을 통해 사회복지라는 틀 안에서 나의 방향성과 전반적인 실무경험, 발전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최종목표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다짐하고 싶은 것은 매 순간 진심으로 임하고 자기발전을 위해 힘들어도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지금의 힘든 7월 한 달의 기간이 지나고 예비사회복지사로서 다방면으로 성장할 나의 모습을 기대하고 그렇게 되자며 스스로 다짐해봅니다.

설레는 배움으로의 첫발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백다을

일상과 다른 새로움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나아갈 길을 신중하게 살핌과 동시에 어떤 길을 걷게 될지 설레는 마음으로 첫발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광장종합사회복지관에서의 실습이 시작되는 첫 날, 어떤 사람을 만나고 무엇을 배울지 설레면서도 긴장되고, 잘 할 수 있을까하는 두려움,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 등 여러 감정과 함께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실습의 첫 일주일은 숨 돌릴 틈 없이 바쁘게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광장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여러 배움을 경험하고 조금씩 실습을 해 나아가는 데에 방향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실천

광장종합사회복지관을 이루고 있는 사례관리팀, 서비스제공팀, 지역조직팀, 운영지원팀의 소개를 들으면서, 추구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한 실천'이 이루어지는 것의 중요함을 알았습니다. '소통', '존중', '협력', '혁신'이라는 복지관의 핵심가치를 알게 되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금의 길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복지관 스스로 던지며 그 핵심가치들에 맞는 실천을 하려는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이에, 저 스스로도 추구하는 가치는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저 자신을 되돌아보면,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소위, '의무감'으로 해온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며 해 나아갈지를 고민하며 중심을 잡게 될

때, 저의 인생에서 이번 광장종합사회복지관에서의 실습이 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실습 첫 주의 경험으로 저 나름대로 실습기간 동안에 잊지 않고 실천해 나아가고 싶은 가치를 정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적극성’과 ‘협력’입니다. 배움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활력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는지, 그리고 혼자가 아닌 ‘함께’ 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며 실습에 임하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의 실제적인 실천 기술

위의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실천’은 인생관에 대해 생각해보는 철학적인 배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외에도 사회복지 현장에서 필요한 실제적인 사회복지 실천기술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바로 ‘서류 작성’ 기술입니다. 현실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게 된다면, 제가 쓴 지원서가 면접관이 처음으로 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류에는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히 담겨야 하고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자기표현’ 기술입니다. 자기표현은 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동료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당사자와의 관계에서도 사회복지사의 자기표현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사자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도 자신을 당사자에게 표현할 때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소통, 소개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세 번째, ‘의견 공유’ 기술입니다. 이번 한 주는 앞으로 하게 될 사업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기획 및 회의하는 시간을 주로 가졌습니다. 특히, 아이디어 공유를 위한 방법으로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 과정을 활용하였습니다. 모든 참여자가 처음에는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낸 뒤 그 안에서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입니다. 그 안에서 저는 다른 사람의 의견이 무엇이든 바로 비판하기보다는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배웠고 실제로 적용해보는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때, 의미 있는 결정과 더불어 ‘효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나, 너, 우리

실습 첫 날, 실습생의 대기실인 복지관 ‘소담 북 카페’에서 땀 흘렸던 그 어색한 분위기는 아직도 잊혀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첫 날의 어색함이 무색할 만큼 다음 날부터 서로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졌던 것 같습니다. 실습을 하면서 각자가 세운 목적을 성취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10명의 동료들과 서로 지지하고 응원하며 배움으로의 길을 함께 나아가고 싶다고도 생각했습니다. 함께 하게 된 동료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경험과 배움을 얻고자 하는 실습생들에게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주신 광주종합사회복지관에도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 또한 배움으로의 설레는 첫발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선배님과 동료들을 존중하며, 함께 뜻있는 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시간과 꿈을 나누는 동료들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송아영

실습 첫 날, 실습 동기로 만난 동료들이 한자리에 모였던 첫 시간의 어색한 공기와 멧쩍은 웃음이 생각납니다. 조회시간을 기다리며 서로 아무 말도 주고받지 못하고 눈치만 보다가 결국 핸드폰을 쳐다보던 동료들의 모습도 생각납니다. 처음에는 앞으로 한 달의 시간을 함께할 동료들과 어떻게 친해져야 하는지,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워낙 낯을 가리는 성격인지라 더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5일의 시간은 그러한 걱정을 떨쳐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일주일의 시간이 길지 않더라도 점심시간 포함 하루 9시간을 함께하며 사회복지와 관련되어 비슷하지만 다른, 다르지만 비슷한 꿈을 나누는 것, 각자 자신의 꿈에 한 발자국씩 다가가는 것,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가까워지기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서로 다른 10명이 모여 의견을 모아 기획하고 진행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사람이기에 각자가 가진 다른 색깔들이 모여 어떠한 시너지효과를 내고 얼마나 밝은 빛을 발하게 될지 기대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안부를 묻다, 힘을 얻다.

독거어르신들에게 안부를 묻는 전화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비록 30분 남짓한 시간이었지만, 실습과정 중 당사자와 처음 소통한 시간이었기에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에는 일면식도 없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일상을 묻고 안부를 묻는다는 것이 설

레면서도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무도 없고 혼자만 남겨진 미술 활동실에서 처음 통화를 걸기 전,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몇 번의 심호흡을 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막상 안부 전화를 시작하고 나니 이 시간을 통해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짧은 통화였지만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그 짧은 대화중에도 감사한 마음을 전해주었습니다. 얼굴 한 번 본적 없는 저에게 ‘건강해라’, ‘복 많이 받아라’, ‘고생 많다.’라며 진심을 전해주셨을 때, 사회복지사의 뿌듯함과 보람을 잠깐이나마 느껴볼 수 있었고 어르신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힘을 얻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뻗은 작은 손길이 오히려 따뜻한 어르신들의 마음으로 인해 저에게 힘이 되어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일상을 나눠주시는 한 어르신과 통화할 때에는 누군가에게는 이 안부 전화 시간이 기다려지는 시간일 수 있다는 선생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광장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해 노인회관 등이 대부분 휴관을 하면서 어르신들의 바깥 외출의 범위, 빈도가 줄어든 요즘 상황에서는 외로움과 적적함을 달래드리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드렸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뭉클하였고 따뜻한 역할에 대해 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를 사회복지관점으로 바라보다.

2020년 2월, 코로나19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재난 상황에서 대두되었던 것은 최전방에서 수고해주시는 의료진의 노력과 그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저 또한 의료

진을 응원하는 릴레이 캠페인인 ‘덕분에 챌린지’에 참여하며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들으며 돌아보니 정작 저의 장래희망인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사회에서 주민들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환경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 누구도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관계를 이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이 주목하지 않아도 어려운 사람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며 누구보다도 그들을 위하고 있다는 것이 참 멋있었고 마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인간이라면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겠지만 사회적 인정보다 사람이 우선인 사회복지사가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나 아직은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은 이 현실이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누군가의 곁에 서있는 사회복지사의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기에, 오늘도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음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너와 내가 아닌, ‘우리’의 첫 걸음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이민지

‘1명의 10걸음이 아니라, 10명의 1걸음’, 이 말은 제가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나타내는 한 마디입니다. 혼자만이 노력하고 성장하는 한 걸음보다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의지하며 성장하는 한걸음이 더욱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광장종합사회복지관에서의 사회복지 현장실습 1주차는 10명의 동료들과,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 뜻깊은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우리’라는 힘이 마음에 더욱 깊이 와 닿아, 깨달을 수 있었던 두 번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3일차의 ‘행복으로(老)의 여행’ 사전교육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향후 3회기 동안 어르신들의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마지막 여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활동을 하기 위한 내용구성을 어떻게 기획할 것인지 팀원과 함께 논의해볼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현장실습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팀원과 함께 기획해보았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내적으로는 직접 기획한 활동으로 어르신의 ‘자아 통합’을 증진하고 노년 삶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우려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팀원과 함께 아이디어를 모으는 과정에서 3번의 만남의 시간이 어르신에게 단순히 활동을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것’임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 내용을 기획할 수 있었습니다. 그

래서 어르신들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인생에 있어서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팀원과 함께 큰 가치를 담아 진정한 ‘행복으로의 여행’을 떠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하여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협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5일차의 “코로나 대응 특별 프로그램” 사전교육 시간이었습니다. 더욱 특별하게 해당 프로그램은 ‘우리’의 힘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현장 실습의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과 변화를 일으켰던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시간이라 더욱 뜻깊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행복으로(老)의 여행’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과 3번의 만남 동안에 전반적으로 다루어야 할 ‘여행’이라는 거시적인 주제가 정해져있었지만, 실습 동료들과 백지상태에서부터 기획을 시작해야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의 우려와는 달리, 최선의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했던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 회의’를 통하여 많은 변화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료들과 ‘어르신들의 디지털 정보격차 문제로 인해 파생되는 상황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_____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초점을 두고, 실제로 빈 종이에 아이디어를 적으며 포스트잇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나타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개별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시하면서 더불어 다른 동료들이 그것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피드백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아이디어가 발전하게 되었고, ‘스마트한 노인생활’이라는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방향성과 세부 내용을 기획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2가지 시간과 결과는 결코, 혼자로서는 수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혼자였다면 나아가지 못했을 이 첫 걸음을 바로 '우리'였기에 큰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할 남은 3주의 시간은 첫 주보다 더욱 깊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넘어야할 언덕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도전하는 것이 두렵지 않고,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협력하여 함께 최선의 한 걸음 한 걸음들을 만들어 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의 걸음에 더욱 명확한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스스로와 동료들에 대해 이해하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실천해야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와 같은 한 명 한 명의 실천이 모인다면, 그동안 학교에서 학생으로서 얻을 수 있었던 배움 이상의 뜻 깊은 경험을 얻을 수 있는 한 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분명, 우리가 미래의 사회복지사로서 성장하기 위한 양질의 양분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변화된 사회, 그 속에서 얻을 수 있던 것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이순호

코로나 19로 사회가 전반적으로 많이 변화했습니다. 사회복지 기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경우 많은 사업들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고 코로나 19라는 도전에 직면하였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 기관은 지역의 복지 향상을 위해 발을 멈출 수 없었고 많은 사업들을 변경해가며 그 도전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중 이번 실습 첫 주를 통해 광장종합사회복지관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기관과 선배 사회복지사들의 후배 양성을 위한 책임감이었습니다. 주변 환경은 변화했지만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줄지 않았고 그것을 키워내는 것이 기관과 선배 사회복지사분들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 현장실습의 첫 주는 적응하는 시간과 남은 3주 동안의 활동들을 위해 기초를 쌓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실습 초반에는 기관의 많은 사업 소개와 아직 친해지지 않은 동료들과 거리를 좁혀가느라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어떤 일을 한다 해도 경험하는 일이고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기초를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습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 중 인상 깊었던 것은 사회복지사의 '책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실습생을 받지 않는 기관도 많은 상황에서 실습생을 선발하였다면 기관 측은 더욱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광진구는 서울에서 두 번째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지

역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광진구에 위치한 광장종합사회복지관의 선배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구의 동과 광장동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든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힘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실습생들에게도 소홀히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정해진 틀을 바탕으로 직접 사업을 구상하고 세부적인 부분을 생각하는 것은 실습생들이지만 조언을 건네고 지역 사정을 고려하여 기관 측의 허락을 받는 것은 더욱 힘들고 바쁜 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실습생들에게 헌신과 노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실습생들도 자연스레 노력하고 기관에 도움이 되려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첫 주가 지난 이 시점에서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이 남아 있는 앞으로의 3주가 매우 기대가 되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생각에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실습을 하게 되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비전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작은 선행일지라도 그것이 나비효과가 되어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실습생들은 모두 다 사는 곳이 다양하고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4명이 서로 같은 학교였고 저 또한 고등학교 때 만났던 인연을 5년 만에 다시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 세상이 참 작다고 느꼈습니다. 세상이 작기 때문에 작은 선행일지라도 그것이 더 큰 나비효과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생각은 ‘폭염기 어르신 모니터링 연락’ 활동을 통해서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이 활동은 독거 어

르신과 청장년층의 고독사를 방지하고 안정감을 주기 위해 실시한 활동이며 실습생들이 어르신들 8명과 매칭이 되어 간단한 연락을 드리는 활동입니다. 전화를 드렸을 때 모든 어르신 분들께서 기분 좋게 연락을 받아 주시는 것은 아니었지만 전날 삼계탕을 전달하는 사업이 있고 난 뒤라 광장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연락을 드렸다고 말씀드리니 정말 감사해하셨습니다. 사소한 연락일지라도 관심을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도 함께 전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초복 같은 사소한 날에 삼계탕을 어르신 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사업을 단순히 좋은 사업이라고만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하고 난 뒤에는 ‘정말 이러한 사소한 일들 하나하나가 이렇게까지 행복을 드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해 저의 비전이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실습을 통해 정말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사회복지사로서 부합할까?’라는 생각과 사회복지사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 배우는 시간으로 삼고 싶습니다. 한 주를 겪으며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에 대해 조금 더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부합하고 다른 기관이 아니라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으로 지원을 한 것이 잘한 일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위밍업 로드, 본 공간으로 가기 전의 경험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주요섭

“공간을 설계할 때는 공간 경험 이전의 경험까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공간뿐 아니라, 공간으로 향하는 길까지 함께 생각하는 거죠. 본 공간을 가장 잘 만끽할 수 있도록 설계된 ‘준비 공간’은 방문객에게 새로운 마음가짐을 선사하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위밍업 로드’인 셈이죠.”¹⁾

일본 교토에는 긴카쿠지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이곳은 수많은 관광객들이 방문 이유로 꼽는 관광명소입니다. 긴카쿠지로 가기 위해서는 지나야 하는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양옆에 나무가 길게 늘어선 돌길을 지나야 하는데 일본에서는 이곳을 ‘참도’라고 부릅니다. 참도는 사찰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마음을 추스르고 신에게 참배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만들어 주는 준비공간입니다. 참도를 걷는 시간을 통해 사찰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는 참도와 같은 위밍업의 시간이었습니다. 동기 실습생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진행할 사업에 대해 배우고 전체적인 과정을 익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준비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이번 실습에 낙오자가 됐을 겁니다. 그 정도로 저에게는 이 한주가 대단히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김태권 선생님과 함께한 ‘너와 나,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이었

1) 생각노트, 「교토의 디테일」 p.84 퍼블리, 2020

습니다. 마인드맵을 통한 자기표현과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있어 높게만 보였던 관계의 벽을 허물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활동을 기점으로 동기실습생들과 대폭 친밀해졌다고 느꼈습니다.

위밍업의 효과는 관계에서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으로 진행할 사업들을 소개받고 익히는 시간은 사업의 의미와 대상자의 환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박아름 선생님과 함께하는 ‘행복으로의 여행’ 프로그램은 독거 어르신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삶의 활동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자아 통합’ 증진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준비하는 동안 어르신에 관해 살피고 활동들을 계획하고 예상 질문지를 작성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준비 시간은 직접 만나 뵈는 시간만큼 중요했습니다. 만약 준비가 없다면 서비스는 어떨까요. 아마 제공자 중심의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에 ‘본 진행 시간’ 못지않게 준비 시간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과정입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사회복지의 당사자를 문제 중심으로 보지 않습니다. 강점과 환경을 살핍니다. 당사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고 지지하는 것이 사회복지의 역할입니다. 당사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걸어온 인생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위밍업 로드’인 셈이지요. 현재에 이르게 된 과정을 살피면서 현재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미래까지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모든 현재는 미래에 대한 위밍업 로드이니깐요.

이러한 사고를 이번 실습을 통해 경험하고 습득하길 기대합니다.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어르신 당사자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동료들과 어떻게 관계를 형성할 것인지 하나씩 배워나가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책은 말합니다. 위밍업 로드는 앞으로 다가올 본 공간에 대한 기대감을 증가시킨다고 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시간을 통해 남은 3주의 시간, 더불어 복지사로서의 삶이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대를 놓치지 않도록 언제나 준비공간을 거쳐 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선부르지 않고 침착하게 말합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실습의 의미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주은서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시작했던 사회복지 현장실습. 그 첫 번째 주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제 실습 1주차가 지났는데 실제 실습을 해보니까 어때?”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실습을 통해 무엇을 배울지, 실습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지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말입니다.

복지관에 대한 적응, 실습생 및 사회복지사 분들과의 관계에 대한 적응, 실습 일정에 대한 적응. 어쩌면 적응의 한 주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익숙해지는 데에 1주라는 시간과 저의 에너지 대부분을 쏟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 저는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연성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저희 삶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스크,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일상생활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원격수업, 재택근무 등 비대면 문화라는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도 영향을 받게 되었으며, 코로나로 인해 복지관의 방향성과 사회복지현장에 점차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당사자의 욕구와 문제를 파악하고 당사자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회복지의 특성상, 현재와 같은 비대면

문화에서는 복지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습 기관에서는 독거 어르신 의식생활 지원 프로젝트, 지역 주민에게 구호물품 연결, 코로나19 속 ‘마음 잇기 캠페인’ 등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을 기획 및 진행하고, 더 나아가 현 상황에 맞춰 사업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는 새로운 위기에 대응하고,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유연성과 문제해결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진로의 방향성입니다. 저는 당사자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함으로써 이전보다 주체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살기 좋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마음으로 사회복지를 전공하여 지금까지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안에도 여러 분야가 있어 저는 항상 진로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여러 갈림길 중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 한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실습을 진행하면서 사회복지 현장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직 한 주라는 시간밖에 흐르지 않았지만, 사례관리팀, 지역조직팀, 서비스 제공팀에 대해 알아보고 현장 사회복지사와의 ‘생생 토크’ 시간, 관장님 및 슈퍼바이저와의 만남 등을 통하여 완벽하게는 아닐지라도 사회복지 현장에 대해 많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 일하는 분위기, 사회복지사 분들이 자신의 일에 임하는 태도를 보며 ‘나도 저런 열정과 전문성을 가지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직 현장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고, 사회복지사가 아닌 실습생의 입장이기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은 3주의 시간동안 사회복지 현장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실습을 통해 열심히 배우으로써 진로의 방향성에 더욱 확신을 갖고 싶습니다.

한 달이라는 실습기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자신의 태도와 마음가짐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전공을 시작한 마음, 실습을 지원할 때의 다짐, 실습을 통해 배우고 느끼는 점들을 가지고 저는 7월 한 달이 아쉽고 짧게 느껴지도록 실습에 임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번 실습을 통해 진로의 방향성에 확신을 가지고 싶고, 사회복지사로서의 부족한 역량을 개발하며 실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술 및 전문성을 함양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실습 2주차부터는 그동안 학습을 통해 습득한 전문지식과 봉사를 바탕으로 강화한 강점을 실습현장에 적용함으로써 현장 기술과 전문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배우고 싶습니다.

감사한 첫 단추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최예은

올 한 해는 누구에게나 그렇듯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고,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상황이 장기전이 되면서 다들 이전과는 다른 삶의 방식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전에는 몰랐던 부분에서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친구들을 만나는 것, 여행을 가는 것, 수업을 듣는 것 등 이 모든 것들이 예전에는 너무나 당연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번 실습도 마찬가지입니다. 3학년 1학기가 끝나면 별 탈 없이 실습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실습을 하지 않는 복지관이 많을뿐더러, 복지관 자체가 휴관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실습 기관을 찾는 것부터 쉽지 않아 이번에 실습을 진행하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운 좋게도, 최종 합격하게 되어 이렇게 광장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습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실습 합격 전화를 받고 기쁜 마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많은 축하를 받았습니다. 그 동시에 걱정과 우려의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실습에서 많이 배워가기 위해서는 본인의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지만, 실습 기관, 담당 선생님들, 실습 동료들 또한 어떠한지도 중요하다는 이야기, 경험담을 들으며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잘 버틸 수 있을지,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을지, 즐겁게 일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하지만 실습 1주차가 지난 지금, 제

가 했던 걱정들이 자만에서 비롯되었다는 생각에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사회복지의 사명을 갖고 일하시는 멋진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과, 하나라도 더 배워가려고 노력하는 동기들을 보며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마지막 단추까지 잘 끼울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첫 단추를 아주 잘 꿸고, 앞으로 껴야할 수많은 단추들 또한 잘 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실습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배우고 싶은 선생님들, 동료들과 함께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한 이 마음을 잊지 않고 실습 끝날 때까지 소중히 간직해야겠습니다.

자연환경보다 ‘인간환경’을 알아가는 시간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홍현기

실습하기 전 놀러 다니고, 여행을 좋아했던 저는 앞으로 1달 동안 놀러 다닐 수 없어 실습 전 주 동안 최대한 자연환경을 누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바다도 다니고, 계곡에서 친구들과 함께 족구도 하며 며칠간의 짧은 기간 동안 즐겼습니다.

즐기고 나니 시간은 흘러 실습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과 실습에 대한 일정에 대해 생각을 하니 긴장이 되고, 내가 어떻게 일정을 소화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이 많았습니다. 일단 걱정이 앞선 채로 실습에 임하였습니다. 직접 부딪치지 않으면 배울 수 없다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며,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날부터 복지관의 여러 팀들의 소개와 팀별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나가고 있는 것과 각 팀의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업에 임하는지에 대해 들었습니다. 사례관리팀, 지역조직팀, 서비스 제공팀, 운영지원팀의 실천이야기들을 들으며 공통으로 느낀 점은 ‘협력’, 그리고 ‘당사자’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회복지는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는데, 광장종합사회복지관은 그 무엇보다 당사자 입장을 생각하며 실천하는 기관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하여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할지에 대한 과정에서 ‘협력’을 끌어내 당사자를 존중하고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등산로 만들기

저희가 등산을 할 때 보통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해 등산합니다. 하지만 등산로는 세월의 흔적이 아닌 누군가 등산로를 기획하고, 최대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도 비슷합니다. 사업을 기획하고, 최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게 구성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길이 잘 닦인 사업을 기획하기 위해 사업 소개를 듣고, 사업을 직접 기획 및 진행하는 것에 많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회의를 통해 아이디어를 내고, 진행하는 것에 대해 긴장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학교에서 이론으로 배운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를 직접 경험으로 배우는 실천 활동을 할 수 있어 뜻깊은 활동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진행하는 사업이니 ‘당사자’ 입장을 생각해야 했고, 이해해야 했습니다. 나를 위한 사업이 아닌 대상자를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더 깊이 생각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흔히 좋은 프로그램이란 창의적이고, 실용적이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라 말합니다. 처음부터 이런 점들을 지키기에는 부족함이 많지만, 역량을 키워 사회복지사로서 좋은 프로그램 개발을 할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이라는 특수성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사업을 진행한 다 했을 때 긴장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보통의 복지관들 프로그램 진행 방식은 대면 방식인데 코로나로 인해 복지

관이 휴관하고, 거의 모든 사업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비대면’이라는 특수성을 받아들이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 아이디어를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깊은 고뇌에 빠지고 있을 때, 퍼실리테이션이라는 방법을 통해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디어가 생각나는 대로 의견을 내는 방식인데, 머리가 어지러웠던 저에게 신선한 향기를 통해 주는 듯한 배움이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는 것보다 기본부터 생각하며 더 창의적으로 다가갈 방법을 배웠습니다. 더 쉽게 생각하고 더 간단하게 생각하면 어려웠던 일도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으며 다음 주에 있는 일정도 소화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복지실천 속으로 한걸음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황희원

사회복지 현장실습의 첫 주는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찬 한 주였습니다. 교육을 통해 사회복지실천 속으로 한 걸음 다가가며 실무자를 직접 만나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아직 한 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사회복지실천 현장을 배워보고 경험해봄으로써 사회복지사로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서비스 제공 1,2팀의 사업소개 교육을 들으면서 서비스 제공사업을 통하여 얻는 가치에는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함께하는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공동체적 가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만이 잘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잘 살고 행복한 공동체 삶의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첫 주이지만 다음 주차 활동을 통해 서비스 제공 활동을 하게 된다면 그 속에서 느끼는 감정과 가치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부 전화 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통해 안부 전화의 필요성을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중 인상 깊었던 내용은 고독사로 돌아가신 어르신 사례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 5년간 시신으로 방치되어 있었던 사례를 보면서 젖 먼저 느꼈던 생각은 방치의 위험성과 안부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혼자 남아 생을 마감하는 심정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사로서 고독사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기 위해 그들의 보호자의 역할을 해주고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육을 받고 난 후 8명의 어르신에게 전화를 걸어보면서 느낀 감정은 복지가 주는 행복감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받고 기뻐하시는 모습과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해주시는 어르신들이 있기에 사회복지사 직업의 가치가 높아지며 도움을 줬을 때의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II. 뿌리를 내리다.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박영탁 · 백다을 · 송아영 · 이민지 · 이순호
주요섭 · 주은서 · 최예은 · 홍현기 · 황희원

나의 부족한 점을 알 수 있던 시간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박영탁

첫 주가 교육 위주의 과정이었다면, 둘째 주는 사업기획 및 구성이 주가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팀별로 힘을 합쳐 아이디어를 구상하며 그것을 사회복지 사업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세밀한 과정들과 작성해야 하는 서류 등은 어렵지 않게 느껴졌지만, 한 가지 어려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팀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하나의 결정 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과정일 수 있지만, 어렵게 느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나의 다소 거친 언행으로 인해 상처를 많이 주고받았던 경험이 있어 선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나 상황들에 대해서는 말을 하는데 있어 온전히 전달하지 못하거나 말을 아끼는 습관이 있었기에 사업기획 단계에서 저의 생각을 완전히 어필하지 못하여 답답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제가 의견을 냈던 사후관리 매뉴얼 제작의 의도는 당사자들의 주된 욕구 충족 중심이었지만, 결국엔 코로나 대응이라는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구성이 되어 개인적으로는 참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에 시작한 폭염기 어르신 모니터링 연락을 통해 느낀 부족함은 대화를 잘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상담 관련 강의를 많이 이수했기에 실습에서도 당사자와 대화를 나눠야 하는 상황이 올 때 당당히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현실로 마주친 상황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느 선까지 말해야 하는지, 무슨 주제를 갖고 말해야 하는지 등

너무나도 당사자와의 대화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실습생들보다 모니터링 통화시간이 현저히 짧았기에 더욱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으로 발전했습니다. 슈퍼비전을 통해 사업의 취지에 맞춰 잘 진행하고 있으니 염려 말라는 피드백이 있었지만, 살갑게 여러 당사자와 편하게 말을 할 수 있는 다른 실습생들이 부러웠고 자극이 되었으며 3주차에 실시 될 사업들에서는 좀 더 보완하여 이행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것을 느꼈던 것은 복지뉴스 토론 활동이었습니다. 토론은 정말 경험도 부족하고 논리정연하게 논쟁을 하는 활동들이 부담으로 느껴졌습니다. 더불어 토론 주제가 가장 관심 없던 정책 분야의 소재였기에 크게 부담이 되었으며 힘들었습니다. 다들 어렵게 느낀다는 실습생들의 말을 들으며 그래도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준비해보자 했지만, 역시 터무니없이 다른 실습생들에 비해 준비한 내용의 분량, 품질, 논리정연하게 말하는 기술 등이 나와 비교되며 한없이 자신감이 떨어지는 활동이었습니다. 물론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넉넉했다면 조금은 더 의견을 많이 제시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며 3주차에 있을 복지뉴스 토론 활동에서는 더욱 분발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잠시 멈추고 돌아보는 시간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백다을

예상보다 빠르게 실습 기간의 반을 넘어왔습니다. 이번 주는 지금까지 지나왔던 길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2주 동안의 활동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실습 일지 작성

솔직하게 말하면, 실습 동안 가장 힘들었던 점은 매일 실습이 끝나고 일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글을 쓰는 것 자체도 오래 걸렸었는데, 작성한 실습 일지로 제가 평가받는다고 생각하니 더 시간을 들여 작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평가에 신경 쓰지 않고 솔직하게 작성하자고 마음을 먹고 적응하는 시간을 보내니, 매일 주어졌던 과제를 하느라 급급했던 이전과 달리 이제는 작성하는 데에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대응 특별 프로그램

본 사업은 스마트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일대일 맞춤형 스마트폰 교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2인 1조의 팀별로 진행되는 다른 사업과 달리, 실습생 10명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기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퍼실리테이션’의 과정으로 10명의 의견을 하나로 모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전기획팀에서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을 기획하였습니다. 그 후 홍보팀에서 제작한 포스터를 외부에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주부터 실제로 교육을 진행하게 되는데 기대가 됩니다.

행복으로(老)의 여행

본 사업은 독거 어르신들의 소중한 삶의 과정을 함께 돌아보며 가치 있는 삶의 방향성을 만들고 정서적인 돌봄의 가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행’이라는 소재로 자연스럽게 어르신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의 만남이 있었지만, 점점 마음을 여시고 편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신 어르신에게 감사했습니다. 실습 기간 동안의 짧은 만남이 어르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만남이 어르신에게 작은 위로가 된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폭염기 어르신 모니터링 유선상담

실습이 진행되는 한 달 동안 일주일에 2번씩 8명의 어르신에게 안부전화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안부전화로 어르신들과 친밀해지고 고민도 해결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르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편한 마음으로 어르신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존중하는 것이 먼저임을 알았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기획 프로그램

코로나19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비대면 만남을 전제로 할 때, 여러 제한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야기된 소통의 단절 및 심리적 우울을 해소하고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광진

구 지역주민을 응원하는 봉사활동을 기획하였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직접 당사자를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회적 이슈 및 복지 뉴스 토론

첫 번째 토론 주제는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찬반 토론이었습니다. 평소 선별적 복지를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이번 토론에서는 기본소득제도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참여하여, 여러 시각에서 보편적 복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로서 사회적 흐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근거로 하여 의견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2주 동안의 실습을 되돌아보니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을 기획하는 과정, 당사자와의 만남, 동료와 선배님과의 소통 등을 경험으로 사회복지 현장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고 저의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준비하는 단계였지만, 앞으로 남은 2주는 준비했던 사업들을 실행하게 되어 또 다른 분위기의 실습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2주 동안의 경험이 배움에 그치지 않고 저의 행동에 있어 적용하고 있는지 성찰하고, 또 동료나 선배님의 협력하면서 서로 뜻깊은 시간을 보내도록 할 것입니다.

당사자 삶의 주인공은 당사자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송아영

이번 주에는 행복으로의 여행 1회기를 진행했습니다. 실습을 시작하고 처음 당사자와 대면하는 시간이었기에 설레는 마음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어떠한 말을 꺼내야 하는지, 어떻게 관계형성을 해야 하는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어르신을 만나 보니 사회복지사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처음 어르신을 만났던 시간이었기에 계획했던 프로그램을 ‘놓치지 않기 위해’, ‘잘 해내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삶을 이해하고 라포를 형성하려고 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어르신이 겪었던, 책으로만 보았던 역사책 속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마치 어렸을 적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옛날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재미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손녀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려주셨는데 손녀들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하실 때 가장 행복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큰 손녀에게 전화가 왔었고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모두의 예상과는 달리 ‘친구들을 만나러 가던 중 생각이 나서’라는 비교적소한 이유의 전화임을 알았을 때 어르신과 손녀들이 매우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에게는 손녀들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자원이자 지지체계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르신이 살아오신 날들이 모두 행복하고 즐거웠던 것은 아니었음을 대화를 통해서도 느낄 수 있었지만 힘든

시절을 겪고 그것을 이겨내신 이야기를 들으며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인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풀어놓으시는 어르신을 보며 당사자의 삶은 온전히 당사자의 것임을, 당사자 삶의 전문가는 당사자임, 당사자 삶의 주인공은 당사자임을 깨달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의견수렴의 중요성과 필요성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이슈와 복지적 관심에 관련된 시대적 흐름에 민감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주제 삼아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기본소득제란 재산, 소득, 고용 여부 및 노동 의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소득분배제도입니다.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 관련된 많은 기사와 논문 등 자료들을 찾아보며 나의 입장에 대한 근거를 탄탄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평소의 저는 경제적, 복지의 효과성 측면에서 기본소득제를 반대했습니다. 반대의 입장을 정한 후로는 찬성의 입장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토론을 통해 찬성 측의 입장을 들으며, 찬성 측에도 나름의 타당한 이유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사회적 이슈를 접할 때 나만의 의견만을 정리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자세의 중요성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위한 사회복지사

2020 교육혁신 이야기 포럼 ‘AC(After Corona)’와 사회복지 교육에 관련하여 라이브 방송을 함께 시청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원래 예정되어있던 ‘슈퍼바이저와의 만남’을 줄여가면서 시청한다는 것에 대한 아쉬운 마음이 컸고, 그 시간을 포기할 만큼 큰 유익이 될지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사회복지사라면,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꼭 들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익한 내용이 많았으며, 사회복지사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의 현실을 돌아보게 하는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깨달음을 얻은 2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난 상황에서는 취약한 사람이 더욱 취약해지고, 소외된 사람이 더욱 소외된다.’는 말이고, 두 번째는 ‘누구보다도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살아야 할 사회복지사가 세상의 눈과 상황 속에서 그들을 소외시킨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입니다.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을 지나고 있는 지금, 소외된 사람들이 관계단절을 많이 겪고 그로 인해 소외감을 느낀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습을 진행하며 안부 전화를 진행할 때도 ‘복지관이 닫으니 갈 곳이 없다.’라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영상 속 ‘복지관 경로식당을 운영하지 않아 무료급식소에서 밥을 먹는다.’라는 어르신의 일화를 들으며 ‘확산방지와 방역을 위해’ 문을 닫은 사회복지관과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을 위해’ 운영하는 무료급식소 중 무엇이 진정으로 그들을 보호해주고 있는가를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사람을 위해 일하는 직업인만큼 상황이 아닌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환경 때문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더욱 취약해지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일하는 사회복지현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동시에, 저 또한 그러한 사회복지사가 되기를 되새기며 다짐했습니다.

생각에 날개를 다는 방법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이민지

어느덧 광장종합사회복지관에서의 사회복지 현장실습 2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너와 내가 아닌 ‘우리’의 첫걸음을 내딛었던 1주차가 지나고, 이번 2주차는 ‘생각에 날개를 다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누구나 끊임없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생각을 하고 멈추는 것과, 생각을 실제로 실현해내는 것은 다를 것입니다. 이번 한 주는 나의 생각과 동료의 생각을 공유하고, 이를 우리가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어보았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각에 날개를 달아서 이것이 날아올라 세상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해보았습니다. 생각에 날개를 달 수 있었던 시간은 크게 ‘코로나 대응 특별 프로그램, 스마트한 노인생활’과 ‘청소년 자원봉사 기획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먼저, ‘코로나 대응 특별 프로그램, 스마트한 노인생활’을 기획했던 시간입니다. 6일차에 진행한 코로나 대응 특별 프로그램의 기획에 있어서는 류세미 팀장님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으며 수정한 1차적인 기획안으로, 실제 기관의 내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7일차에는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의 홍보물, 사업계획서, 매뉴얼을 바탕으로 기관 주변의 아파트 라인 홍보를 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동료 실습생 선생님들과 함께 기획한 내용에 피드백을 받아 수정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점점 구체적으로 윤곽이 잡혀 발전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프로그램을 보면서 깊은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파트 라인 홍보 활동을 통해서 동료들과 제작한 홍보물을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직접 발로 뛰며 홍보를 해보면서도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주는 퍼실리테이션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각을 만들어 보는 시간이었다면, 이번 주는 어르신들과 ‘스마트한 노인생활’을 진행하기 위한 최종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의 생각에 큰 날개를 달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생각에 날개를 다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은 ‘청소년 자원봉사 기획프로그램’ 시간이었습니다. 6일차에는 팀별로 준비한 자료조사 내용과 기획한 내용에 대해서 서로 공유해보고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8일차에는 팀별로 기획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동료들 앞에서 PT를 활용하여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이에 대해 계속 발전할 좋은 점과 보완해야할 단점에 대한 상세한 피드백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우리들의 생각을 보다 좋은 방법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스스로와 동료, 그리고 사회복지사 선생님의 피드백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각에 날개를 달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이번 2주차는 1주차에서 머릿속으로 떠올린 생각들이
힘차게 날아오르기 위한 ‘날개를 다는 방법’에 대해서 보고 배
웠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날개를 단 우리의 생
각들이 멋지게 날아, 아름답게 실현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사회복지사가 타야 할 열차는 무엇인가?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이순호

실습의 2주차를 마친 뒤 집에 가는 열차에서 타고 내리는 사람들을 보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바빠 보였고 나만 바쁜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지난 실습 2주차를 더욱 떠올리게 했습니다. 실습의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 가고 있고 다른 실습생들도 똑같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는 프로그램을 구상해보고 피드백을 받았으며, 홍보지 제작활동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상한 프로그램을 홍보했으며, 어르신 방문도 할 수 있었습니다. 2주 차 또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중간 평가서를 작성하면서 작성할 것을 따로 생각하지 않아도 글이 저절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예쁘게 표현이 기록 되지는 않았지만 하루하루 지나며 많은 것들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실습한 내용 및 역할 요약 란을 작성할 때 사업마다 자신이 느끼고 있는 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성했던 글을 다시 읽어보며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이고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맞는 걸까?’라는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듣게 되면 시험이라는 평가를 통해 나 자신의 성취 정도를 확인할 수 있지만 실습 중간 평가서는 자신이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성취도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곧 졸업을 하고 현장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더욱더 조급했습니다. 하지만 평가 후 선배 사회복지사분들을 통해 “실습생들마다 각자 느끼는 바는 다르겠지만 잘 해 나아가고 있다. 단순히 와 닿지 않는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후에 이 실습이라는 기간이 생각이 나고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피드백을 들을 수 있었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길로 그 대로 가도 괜찮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행복으로(老)의 여행’은 당사자와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당사자와 만나기 전 선배 사회복지사들로부터 어르신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어르신은 다가가기 힘들 수도 있다며 첫날에는 관계 형성에 초점을 맞추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것을 토대로 어르신과 1시간 정도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만난 어르신은 생각보다 우리들을 더욱 반겨주셨고 많은 말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역시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전 준비 단계 과정 중의 피드백은 도움이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가 본 어르신은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르신 댁을 나올 때 어르신이 아쉬워하시는 모습을 느끼고 “오히려 3번 정도의 만남은 아쉬움을 남기고 허무함을 느끼게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궁금함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물음은 ‘사회복지사가 처음 만나 뵈을 당시 가지고 있는 가치’와 연관 지을 수 있었습니다. 3번의 만남을 하는데 어르신에게 뜻있는 시간과 긍정적인 작용을 만들어 드리고 싶다는 가치와 관점을 가지고 임한다

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고 나 자신을 비롯해 어르신에게도 많은 것들을 남겨줄 수 있습니다. 작은 프로그램 일지라도 가지고 있는 가치만으로도 많은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고 하면 대부분 돌아오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 하네”라는 말입니다. ‘과연, 좋은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2020 교육 혁신 이야기 포럼을 들은 뒤 더 커졌습니다. ‘재난 시에 사회복지사는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관한 내용을 듣는 중 타국의 사회복지사에 비해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것을 또 다시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타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힘을 쓰지만 타인이 생각하기에 단순히 좋은 일만 하는 직업이라면 ‘재난 시 과연 사람들은 사회복지사에 대해 어떤 도움을 바라며, 그에 따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소방관은 불을 끄는 직업이고 경찰관은 사회 안전을 위해 힘을 쓰는 직업이지만 사회복지사는 단순히 좋은 일만 하는 직업이라고 인식이 된다면 단순히 자원봉사자와 다를 것이 없고 과연 우리는 발 벗고 나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추가로 들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복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법도 많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식은 예전과 많이 바뀌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사회복지사

라는 직업에 대해, 사회복지사가 가지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 돌이켜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사회가 바뀐다면 사회복지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나고 인식이 바뀌는 종착역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기획 과정, ‘그래도 결국은 사람입니다.’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주요섭

7월 17일, 계획에 없던 특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복지교육네트워크에서 진행한 ‘포스트 코로나와 사회복지교육’이란 주제의 포럼을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포럼은 다양한 기관의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복지의 미래를 조망하는 시간이었는데 그 속에서 오간 대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우선, 생각보다 복지현장에 미친 코로나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코로나가 사회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을 뒤바꿀 만큼 파급적이기 때문에 복지제도 마찬가지로 혼란하다고 말입니다. 실제로 사교육뿐만 아니라 공교육의 형태도 뒤바뀌고 있습니다. 물리적 공간을 공유하지 않고도 지식전달이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표경흠 대표님은 교육의 형태가 “강의자 중심에서 수강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교사는 서비스 제공자로 변모하고 학생은 서비스 이용자인 고객으로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교육을 골라 이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배제됩니다. 인격적인 교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식전달 차원에서는 탁월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교육의 진정한 가치가 담겨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설화 선생님과 함께 기획한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코로나를 고려해 비대면 활동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기획하는 동안 비대면 활동이기에 따져봐야 할 새로운 요소들이 많았습

니다. 일회용품 줄이는 활동을 인증하는 형식인데 참여 방식과 검증방법에서 마땅한 대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노하우와 카드뉴스라는 키워드를 얻어서 기획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정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이런 식으로 변화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서비스를 전송하는 것 말입니다. 지난 포럼에 참여하신 이성종 선생님은 사회복지가 영상을 적극 활용해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활동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변화에 대비하고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실제로 광장복지관 및 여러 다양한 복지기관들이 온라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성종 선생님이 하신 우스갯소리로 팀 회의에서 관장님이 직원에게 ‘조회 수 체크’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농담으로 던지신 말이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말이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 중 독거 어르신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어르신이 스스로 삶을 돌아보고 현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인데 직접 어르신을 만나 뵙고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의미 깊게 다가왔습니다. 처음 어르신 댁에 갔을 때 제가 할 일은 정중하게 인사드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어르신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듣는 것이었지요. 다양한 활동을 준비했더라도 그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어르신의 마음이었습니다. 실제로 준비해간

모든 활동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어르신께서 그저 이야기 나누는 것으로 만족하셨기 때문입니다. 준비한 활동을 하지 못했다고 속상하거나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르신께서 대화의 시간을 좋아해주시니 그걸로 만족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김태권 선생님의 조언 덕이었습니다. 서비스 제공의 부담을 내려놓고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비스 제공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관계 형성이기 때문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복지지는 비대면과 온라인의 확장으로 말 그대로 최첨단으로 변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의 본질은 서비스가 아닌 사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세련된 시스템을 가지고 대상자를 만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포럼에 참가하신 방대옥 대표님과 김세진 소장님은 현재 사회복지지를 성찰하고 돌아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지가 성과주의와 교육만능주의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 사람보다 서비스가 우선이지 않았는지, 복지는 다양성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사회복지의 중심은 결국은 사람이고 관계인 것 같습니다. 어르신을 만나서 나누었던 대화처럼 직접 만나서 온기를 나누고 얼굴을 맞대야 하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 봉사도 직접 만나 함께 했다면 더 의미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변화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사회가 급변한다면 변하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요. 그게 본질이라고 합니다.

이번 한 주는 기획을 통해 서비스의 가치와 본질을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생각을 구체화시키고 실현해보는 과정일 듯합니다. 새로운 기대감이 생깁니다.

‘너’와 함께이기에,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주은서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어쩌면 그 일은 ‘나’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힘을 합치게 되면 그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더 빠르고 재밌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함께’라는 힘 덕분에 말입니다.

실습 1주차가 적응의 한 주였다면, 실습 2주차는 저에게 기획의 한 주로 지나갔습니다. 본격적인 사업 진행에 앞서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면 좋을지’ 등에 대해 고민하고, 실습생들과 함께 논의하며 사업을 준비해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코로나 대응 특별 프로그램의 경우, 광진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의 기본 기능과 어플리케이션 활용의 전반적인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2명씩 팀을 구성하여 진행하는 다른 사업들과 달리 실습생들 다 같이 참여하여 사업을 기획 및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이를 하나의 결정으로 모으기까지 시간이 지체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하는 태도를 배웠고, 한 명이면 하기 어려웠을 일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함으로써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업의 전반적인 기획과 홍보 이후에는 필요한 물품 준비, 만족도 조사지 제작, 매뉴얼 제작을 실시하였

습니다. 매뉴얼은 스마트폰 교육이 끝난 이후에도 어르신들이 코로나 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사후관리차원에서 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뉴얼 제작 과정에서 사전에 어르신들의 스마트폰 활용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워 어르신의 입장보다는 실습생들의 입장에서 매뉴얼을 제작하게 된 것 같아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매뉴얼이 어떤 어르신에게는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에 반복된 논의와 수정을 거치며 제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는 사업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이 사업을 왜 하는지에 대해 늘 생각해볼 수 있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제공자 중심이 아닌 당사자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하며, 사소한 것을 하더라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일을 할 수 있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경우, 저희 팀은 청소년 온라인 고민 상담을 진행하기로 기획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고민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과 함께 또래 청소년의 고민에 대해 공감하며 응원과 위로, 조언을 작성해주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서로 간의 긍정적 관계 및 지지 체계를 형성하고, 공동체적 가치를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실 이 사업을 기획하는데 있어서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 기획은 처음이다 보니 더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이 기획한 내용의 경우, 사실상 고민이 있는 청소년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다른 팀들보다 사업에 대한 당사자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건 아닌가?'

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양적인 실적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목표가 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사업의 방향성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고, 이 과정을 통해 '나는 그동안 어떤 것을 더 중요시하였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며 예비 사회복지사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사업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보다 단순하고 접근하기 편리한 사업을 기획하되, 당사자에게 의미 있는 사업을 기획해야한다는 점을 크게 느끼며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을 준비하고 기획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혼자였으면 못 했을 수도 있는 일들을 동료 실습생들과 함께 해결해나가며 협력과 협동의 중요성에 대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저의 사고가 확장됨을 느끼고 있고, 실습생들과 함께 논의하며 점차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구성해가는 이 과정이 이제는 '재밌다'라고 느껴집니다. 어떻게 보면 그저 '10명의 실습생들이 모였다.' 단지 그것뿐일 수도 있지만, 같은 시간을 공유하는 이 순간의 특별함을 알기에, 그리고 소중한함을 알기에 같이 이야기 하고, 서로의 집을 들어주기도 하고, 또 가끔은 기다려주기도 하며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잊지 말아야 하는 것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최예은

한 주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지난 1주차 활동을 뒤로 하고, 2주차에는 진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처럼 우리가 진행해야하는 사업 및 프로그램들에 대한 기획을 하는 시간들을 주로 가졌습니다.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과 청소년 비대면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였고, ‘행복으로의 여행’ 프로그램 어르신 댁 첫 방문을 다녀오기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르신과의 만남이 있었던 행복으로의 여행 프로그램이 가장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이 프로그램은 처음을 당사자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했고, 관계형성을 잘 하면서도 프로그램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부담감에 긴장을 많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방문 해보니 걱정이 무색해질 만큼 어르신께서 너무나 반갑게 맞이해주셨고 긴장했던 마음도 금방 누그러졌습니다.

어르신과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는 와중에도 계속 우리를 챙겨주려 하시고, 만나서 너무 좋다고 해주시는 모습이 너무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반성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껏 저는 사회복지사는 당사자를 위해 무언가를 해줘야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물품을 지원하고 여러 프로그램들을 기획해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께서는 한 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얼굴 보고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회복지사가 뛰어난 기획력과 숙련된 전문 기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코로나 끝나면 제일 하고 싶으신 것이 뭐냐는 질문에도 그저 복지관 선생님들하고 지금처럼 얘기 자주 나눴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고 사회복지라는 직업에서 내가 '사람, 마음'에 대하여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했는지 스스로 반성을 하였습니다.

실습을 하면서 사회복지사로서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 가치관에 대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실습을 하고 배우는 입장이니 계속 되새기겠지만, 먼 훗날 사회복지사가 되고 나서도 이 기록을 보면서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무리 바쁘게 살더라도 소중한 것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준비 운동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홍현기

우리는 운동을 하기 전, 출근 후 업무를 보기 전, 항상 준비합니다. 이번 2주차는 실습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준비 운동은 주 운동의 효과를 충분히 올릴 수 있도록 몸을 예열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는 사업 및 프로그램의 기획, 홍보 등을 하며 진행 전 과정을 수행했습니다.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지 고민을 했던 기간이었습니다. 실습을 해오며 계속 고민했던 내용이었고 재차 생각해본 시간이었습니다. 이에, 내린 결론은 첫 번째는 언제나 우선시 되어야 하는 ‘당사자’, 두 번째는 ‘협력’입니다.

실습하면서 느꼈던 것은 단독 혹은 소수의 인원과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을 때 보다 여러 인원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더욱 어려웠습니다. ‘사공이 많을수록 배는 산으로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팀원과 같이 진행했을 때에 각각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보니 협력도 쉽지 않았습니다. 복지관에서 실습 면접을 볼 때 ‘협력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그때의 저는 ‘너도 이렇게 생각해? 나도 이렇게 생각해 그럼 우리 같이 해보자!’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상황을 겪어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은 매우 이상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사실 처음 질문을 받았을 때 협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단어의 뜻을 생각했을 때 현실에서는 매

우 이상적이고 추상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협력은 ‘현실에서는 힘든 것일까?’ 하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협력은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각각 생각이 다른 만큼 이해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서로 뜻하는 바가 다르더라도, 이해와 배려를 하는 것이 협력이라는 단어의 아름다운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르막길

오르막길을 오를 때 항상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내가 이 오르막을 과연 오를 수 있을까, 조금 쉬었다 올라갈까.’ 하는 내면의 고민을 많이 합니다. 쉴 새 없이 고민하는 동안 잠깐 멈춰보면 어느새 오르막길을 많이 올라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하였던 중간평가 시간도 오르막길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간 평가를 통해 내가 처음보다 어느 정도 발전을 했는지,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며 지내왔는지에 대한 자기평가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실습계획서에 있는 실습목표에 대한 달성도도 보면서 서로 중간까지 온 모습들도 공유했습니다. 이 중 제가 가장 많은 생각을 하였던 부분은 ‘가치’라는 것 같습니다.

‘가치’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와 인간과의 관계에 의하여 지니게 되는 중요성 등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어느 하나 명료하게 설명된 뜻은 없었습니다. 즉, 그것은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달라진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중간평가까지 왔는지에 대

해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지난 2주 동안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것이 ‘당사자’였습니다. 내가 만족하기 위해 만드는 프로그램이 아닌 당사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했기 때문에 당사자라는 부분에 가치를 둔 것 같았습니다. 당사자를 우선순위로 두는 것은 당연한 말이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바로 ‘당사자’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2주라는 시간이 더 남아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어떤 가치와 정체성을 품고 임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가치’라는 말이 아직도 어렵게 느껴지지만, 실습 끝까지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어떤 가치를 지녀야 하는지에 대해 계속 성찰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 실천현장을 경험하다.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황희원

사회복지 현장실습의 2주차는 1주차와 달리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는 한 주였습니다. 프로그램 기획부터 시작하여 가정방문까지, 사회복지 현장에서 하는 일들을 경험해보며 힘든 시간이기도 했지만, 동료와 함께 라서, 그리고 지도자가 있기에 뜻깊은 시간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대응 특별 프로그램 기획과 청소년 자원봉사 기획을 하면서 첫 시작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 대응 특별 프로그램에서는 프로그램 홍보에 집중하여 팀원과 상의하고 홍보물을 제작하였습니다. 홍보지를 만들면서 느낀 생각은 이 홍보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섬세하게 홍보물을 제작하고 홍보 전략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이 신청하신 것 같아 뿌듯하고 많이 참여해줬으면 하는 우리의 바람을 지역주민들이 알아준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기획은 비대면 봉사라 새롭지만 또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활동이었습니다. 처음해보는 프로그램과 발표까지,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끊임없이 고민하고 팀원과 대화하며 어려움을 극복해갈 수 있었습니다.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은 없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앞으로 실습 활동에서 어려운 일들을 팀원

과 함께, 혹은 슈퍼바이저분들의 조언을 받으며 극복해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행복으로의 여행’ 프로그램 어르신 가정방문 시간은 이야기를 통한 따뜻한 나눔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품이나 현금 제공만이 나눔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화를 통해 당사자의 심리적 안정감과 기쁨을 줄 수 있다면 소소한 대화 또한 소중한 나눔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어르신 한 분의 삶의 이야기와 인생철학에 대해 들어보는 경험들은 실습이 아니었으면 경험해보지 못할 수도 있는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가정방문 활동에서는 걱정이 아닌 기대감을 먼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경청과 공감을 통해 어르신의 이야기를 잘 듣고 어르신과 우리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Ⅲ. 피어날 그날을 꿈꾸다.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박영탁 · 백다을 · 송아영 · 이민지 · 이순호
주요섭 · 주은서 · 최예은 · 홍현기 · 황희원

북극성을 바라보며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박영탁

바쁘고 지치는 일상 속에서 가끔 하늘을 올려다볼 때가 있습니다. 눈부신 햇살과 구름이 낀 파란 하늘보다는 캄캄한 밤하늘이 더욱 정감이 갑니다. 온통 새까만 어둠, 그 속에 홀로 빛나고 있는 별들이 외로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별 중에 가장 찾기 쉬운 북극성을 자주 보고 유심히 보는 편인데 캄캄한 밤하늘에서 가장 빛나려 하는 북극성의 모습이 나의 상황처럼 느껴 집니다. 옛날 사람들은 밤 중 깊은 산 속이나 사막에서 길을 잃었을 때 북극성을 보고 길을 찾았다고 합니다. 북극성은 언제나 북쪽 하늘에 떠 있습니다. 그렇기에 길을 잃었을 때도, 방향을 잡기 어려울 때도 변하지 않는 명확한 기준이 되어줍니다. 어쩌면 사회복지사가 가져야 하는 가치라는 것은 북극성처럼 길을 잃은 자신에게 방향을 지시해주는 명확한 지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장실습 과정에서 다양한 실천현장 선배님들의 조언과 피드백을 들으며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듣기도 하고, 모두 입을 모아 중요하다 강조한 것은 사회복지사로서 가져야 하는 가치였습니다. 가치는 앞서 말한 것처럼 방향을 지시해주기도, 때로는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소진상태가 될 때 다시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가치를 갖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을 통해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사회복지사로서 가져야 할 가치는 뭘까?"

생각을 반복하면 할수록 포괄적이고 정형화되지 않은 가치라는 단어가 아직도 어렵게 느껴집니다. 일반적인 사회복지의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자기결정권, 균등한 기회, 사회적 책임, 자유, 평등, 생존권 보장 등 많은 가치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예비 사회복지사인 박영탁의 가치는 무엇일지 생각했습니다. 반복되는 생각 속에서 사회복지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떠올려봅니다. 힘들고 방황하던 8년 전 겨울, 삶의 방향성을 잃고 원망만이 남아 있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괜찮다고 말해주시던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생각납니다. 괜찮다는 그 말은 업무적으로 해야 하는 말이 아닌, 그저 빈말로 하는 말이 아닌, 관심과 사랑이 담겨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따뜻한 그 말은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받았던 도움과 사랑을 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사람이 되고 싶기에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 말은 늦게나마 입학한 대학 면접, 이번 현장실습 면접 등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이유에 대한 물음들에 늘 자신 있게 답변하던 말입니다. 어쩌면 저는 답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받았

던 도움과 사랑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제가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이유이며, 사회복지사로서 거듭나서도 잊지 말아야 할 저만의 가치일 것입니다.

실습은 마무리가 될 것이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 반복해오던 생활을 이어나가겠지만, 무더웠던 2020년 7월 한 달 동안의 경험, 배움 그리고 나만의 가치를 잊지 않고자 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밤하늘의 북극성을 바라보며 나만의 가치를 다시 떠올리고 동이 터오는 지평선으로 힘차게 달려 나가는 자신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작지만 위대한 것들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백다을

‘나비효과’,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태풍을 일으키듯, 작은 사건이 예상치 못한 엄청난 결과로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어느 작은 씨앗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는 작은 씨앗입니다. 어둡고 단단한 땅 속이지만 작은 씨앗은 결국 땅을 뚫고 싹을 틔우고 맵니다. 넓은 대지에 솟아난 새싹은 아무리 봐도 작고 약해보입니다. 하지만, 그 새싹은 개의치 않고 마냥 열심히 자랐습니다. 열심히 자라 돌이 되고 셋이 되고, 그렇게 여럿이 되었습니다. 작은 씨앗에서 자라났던 이들은 많은 생명들을 숨 쉬게 하는 큰 숲이 되고,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의 식량이 되고,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옷감이 되어주었습니다. 저는 작고 사소한 것들을 평범함으로 치부하여 그 소중함을 잊었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에 사회복지를 담게 된 계기도 사소한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반 친구들과 함께 영화 ‘울지마, 톤즈’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수단 톤즈 마을 주민들과 이태석 신부님과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마음에 아프리카와 같이 덥고 물도 없는 삭막한 곳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힘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에서도 이태석 신부님과 톤즈 마을 사람들은 즐겁고 소중한 추억 쌓으며 삶을 함께 살아갔습니다. 이태석 신부님과 톤즈 마을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행복한 웃음과 그 웃음 속에서 느껴지는 수많은 감정들이 저에게 큰

올림이 되어 마음 속 깊이 퍼졌습니다. 되돌아보면, 그 올림을 느끼는 찰나 저는 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세우게 되었고 그것을 시작으로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자’,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순수한 꿈입니다. 순수한 꿈인 만큼 어떻게 실현시켜나갈지 막막했습니다. 과연 행복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전할 수 있는지, 내가 그들에게 행복을 전할 수 있는 것인지 등 ‘행복’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상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아졌고, 정말 어렵게 다가왔습니다. 저만의 이런 저런 생각에 속에서, 저에게 올림을 전해준 톤즈 마을 사람들의 소소한 웃음의 소중함을 잊혀져 갔습니다.

실습하면서 당사자와 직접 만날 수 있었던 활동은 ‘폭염기 어르신 모티너링 연락’, ‘행복으로의 여행’이었습니다. 부끄럽지만,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짧은 만남 속에서 저도 모르게 어르신들의 삶을 쓸쓸한 삶이라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잠시 동안 그들의 삶에 발을 들여놓고 떠나는 상황이 어르신이 쓸쓸함을 더 느끼게 하는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지 하는 걱정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내적 혼란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좀 더 고민하고 선배 사회복지사님의 조언을 얻으며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톤즈 마을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제가 만난 어르신들은 그들의 고유한 환경 속에서 자신만의 강점을 가지고 소중한 인연과 함께 삶을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삶을 존중한다면, 저는 책임감이 아닌 감사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저의 존재는 잠시 스쳐가는 인연 일 수 있습니다. 스쳐가는 인연이지만, 전화기 너머로 서로의 일상을 나누었던 순간들, 가정 방문으로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던 순간들, 가끔은 어두워지기도 웃기도 했던 순간들, 큰 변화는 없는 소소하게 서로의 삶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사소한 순간들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당사자와의 만남에서 느낀 작은 감정의 변화에서부터 제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에 대해 고민하게 되고, 결국 이렇게 사소한 것의 소중함을 알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작고 사소한 일들은 헛되지 않으며, 보이지 않지만 서로의 삶에 큰 바람을 일으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잠시나마 당사자의 삶에 들려 소소한 즐거움과 위로, 행복을 전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감사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사회복지사가 되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실습 과정에서도 사회복지사로서 추구하는 가치를 찾고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실습 첫 주에 실천해나가고 싶은 가치로 ‘적극성’과 ‘협력’을 말했습니다. 실습의 마지막에 다다르고 있는 지금, 저는 사소한 것에 감사하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자’, 순수하고 막연하다고 느껴졌던 꿈입니다. 하지만, 작은 씨앗이 자라나 숲을 이루고 사람들의 식량과 옷이 되었던 것처럼, 배움으로의 첫 발을 시작으로 사회복지사로서의 길을 만들어나가고 있는 것처럼, 작고 사

소한 것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소소한 행복을 나누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충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땅함을 행하는 사회복지사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송아영

실습을 진행하며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는 생생토크 시간과 슈퍼바이저의 만남 시간을 여러 번 가졌습니다. 다양한 주제로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공통되는 점이 있다면 사회복지에 대한 열정이 넘친다는 점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적 가치관이 뚜렷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모두는 한 가지의 작은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뜻깊고 의미 있는 사업을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사답게 고민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이 멋있어 보였습니다. 선배 사회복지사들이 지켜온 사회복지에 대한 신념과 가치들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을 보며 이 직업이 얼마나 멋있는 직업인지, 얼마나 가치로운 직업인지 온몸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선배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을 따라 언제나 마땅한 마음으로 ‘마땅함’을 행하는 사회복지사, 가치를 먼저 생각하는 사회복지사가 되어야겠습니다.

스마트한 노인생활

이번 주에는 코로나 대응 특별프로그램으로 ‘스마트한 노인생활’을 진행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마스크 사용법을 몰라 일회용 마스크를 세탁하여 사용하거나 접힌 상태로 사용한다는 이야기와 마스크 수량을 검색하는 것이 어려워서 한 시간이 넘도록 약국을 돌아다녀 겨우 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간단한 인터넷 검색으로도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이지

만,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고생하셨을 어르신들을 생각하니 안타까웠습니다. 상황을 알게 된 실습생들은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고 준비 기간을 거쳐 어르신과 1:1로 매칭이 되어 직접 재난문자 확인을 비롯해 기본적인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필요로 하시는 어플리케이션 사용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젊은 세대인 우리에게는 너무나 일상적이고 쉬운 일들이 어르신들이 느끼기에는 벽차고 어려운 일이 된다는 것이 조금은 속상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작은 것을 알려드려도 연신 감사를 표해주시는 분들을 보며 더 큰 감사함을 느꼈고 누군가를 위해 일한다는 것에 대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정보격차는 새로운 정보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에 경제적·사회적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정보격차로 인해 느낄 상대적 박탈감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많은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은 좋은 일이나 이런 환경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하는 것도 사회복지사가 해야 하는 역할임을 깨달았습니다.

함께여서 가치로운 시간들

실습을 시작하고 어느덧 3주차를 마무리하며 글을 쓰고 있습니다. 낯설기만 했던 북카페는 이제 실습생들이 가장 편하게 쉬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고, 서로를 향해 장난을 주고받는 화기애애한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로 활기가 가득합니다. 지난 3주를 돌아보니 실습일지와 명찰을 관리하며 허둥거리던 나의 모습을 보고 함께 챙겨주던 고마운 동료들이 생각나고, 일과 중

가장 진지하게 점심 메뉴를 고민하던 귀여운 동료들도 생각납니다. 웃고 떠들다가도 실습에 임하는 모습이 누구보다도 진지했던 동료들의 모습도 생각납니다. 동료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사회복지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동료들을 보면서도 많은 것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크게 배우게 된 것은 '동료의 중요성'입니다. 실습 중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느껴지기에 혼자였으면 절대 이를 수 없었을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3주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각자가 다른 힘들을 가지고 있었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실습을 진행하며 늘 즐겁고 행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체력적으로, 때로는 심리적으로 힘들고 지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있었기에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나 하나만 힘든 것이 아님을 모두가 잘 이해하고 있었기에 서로를 보듬을 수 있었고 함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서로를 믿고 지지해주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함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회복지기관과 실습생 가운데서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으로 만난 우리, 시간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한 이 만남의 시간이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우연이 되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지만 함께여서 더욱 가치로웠던 이 순간은 서로의 기억과 마음 그 어딘가에 간직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선명한 거울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이민지

첫걸음을 땀었던 실습 첫째 주, 생각에 날개를 달았던 둘째 주가 지나고 셋째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셋째 주는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선명한 거울'로 스스로를 볼 수 있게 한 주였습니다.

저를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울은 주변에 흔하게 있지만, 그것들은 선명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 겉모습만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이번 3주차를 지내오면서, 겉모습만이 아니라 내적인 부분까지 비춰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선명한 거울을 찾을 수 있었는데 이는 바로, 9명의 동료들과 기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었습니다. '이민지'라는 사람을 내적인 면까지 있는 그대로 선명하게 비춰주었던, 세상에서 가장 선명한 거울을 만날 수 있었던 순간은 크게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슈퍼바이저와의 만남' 시간입니다. 슈퍼바이저인 류세미 팀장님, 홍현기 동료 실습생 선생님과 함께 직접 제작한 '자기 분석지'를 활용해서 서로의 강점·약점·차별점을 알아보고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동료가 바라보는 '나', 슈퍼바이저가 바라보는 '나'에 대해서 진솔하고 깊게 알아봄으로써 선명하게 제 자신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나아가 스스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과 차별점을 더욱 발전시키는 바람직한 사회복지사가 되어

이후 실습시기를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순간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소중하고 특별하게 마음에 와 닿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 현장실습 실천기록집’ 중간 공유회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더욱 특별했던 이유는, 제 자신을 선명하게 비춰주는 동료들도 느낄 수 있었지만 제가 동료를 선명하게 비출 수 있는 거울이 될 수 있었던 시간이라 더욱 특별하게 기억됩니다. 해당 시간은 1주차와 2주차의 개별 실천기록물을 함께 활동한 동료가 서로 바꿔 읽어주며 진솔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동안 기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로부터 많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하루 중의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며 가장 가깝게 생활하는 동료들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이민지’라는 사람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도 동료들에게 피드백을 줌으로써 ‘박영탁’, ‘백다을’, ‘송아영’, ‘이순호’, ‘주요섭’, ‘주은서’, ‘최예은’, ‘홍현기’, ‘황희원’이라는 동료들이 가진 사람으로서의 내적인 면까지 비춰줄 수 있는 선명한 거울이 되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3주차는 서로의 시선에서 깊이 있게 바라보고 비춰 줌으로써, 서로에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선명한 거울이 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과 동료들의 모습이 1주차에 비해 크게 성장한 지금입니다. 저는 실습 마지막인 4주차에는 더욱 많이 성장되어있을 우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저는 앞으로 실습이 종결된 후에도 계속해서 서로가

성장한 모습을 비춰줌으로써, 제 동료의 약점은 보완하고 강점은 발전시켜 더욱 빛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모두의 마음에 오랜 시간 ‘세상에서 가장 선명한 거울’로 남고 싶습니다.

꽃이 되기 위해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이순호

꽃은 생각보다 예민한 식물입니다. 흙에 심고 물을 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도, 햇빛, 등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하지만 기후가 맞지 않는다면 정성을 다해도 꽃은 피어날 수 없습니다. 실습생들은 이번 실습을 통해 ‘사회복지가 나와 맞는지?’, 혹은, ‘꽃을 피우기 위해 사회복지에 정성을 쏟는 것이 맞는지?’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랬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느꼈습니다.

실습을 통해 ‘동료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동료는 단순히 힘이 되어주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실습을 통해 동료란 힘이 되어주는 존재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루하루의 소감을 이야기하며 실습생들은 서로에게 감정을 공유했고, 남모르게 서로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지역사회에 있는 당사자와 만나보고 개입을 하는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더욱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응원하는 것만이 아닌 이야기를 통해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은 향후 딜레마에 빠지거나 번 아웃 상황에 놓였을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은 만남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좋은 동료들과의 만남이었던 이번 실습이 더욱 행복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실습을 통해 ‘당사자 중심’의 사회복지를 알았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사회복지 수업 중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클라이언트’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클라이언트라는 말은 한 번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현장에서는 당사자라는 말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김태권 선생님은 클라이언트라는 말은 사회복지사의 관점에서 바라본 단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남을 단순히 돕는 직업이 아니라 당사자의 자기 주체성, 결정권을 당사자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직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라는 말이 적절하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변화는 나비효과가 되어 분명히 큰 변화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이렇게 배운 자세를 품고 당사자라는 말을 사용하는 배려는 사회복지에 더욱 큰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오기 전 저는 해외봉사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 속에서 ‘순수한 행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NGO 단체로 취직을 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습을 통해서 단순히 NGO 단체가 아니더라도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이 의미가 있고 내가 담고 싶었던 가치를 담을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선배들을 통해 사업을 실시할 때 성과가 있는 사업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 자체에 자신이 담고 싶은 가치와 의미를 담아야 하고 사업을 준비해 가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얻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좀 더 폭넓은 방향으로 미래를 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실습생들은 씨앗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야 토양과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피우기에는 아직 이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지금은 저희 10명의 실습생들은 사회복지라는 토양을 만나 뿌리를 내릴 수 있는지 알아가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광장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햇빛을 만난 것은 행운이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기관과 선배들의 헌신 덕분에 지난 3주라는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배웠고 그것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꽃을 피워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회복지사가 되는 길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어떤 태풍과 폭풍우가 쏟아져도 실습이라는 기회를 발판 삼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실습이 끝나더라도 이 ‘현장실습 실천 기록집’을 보며 즐겁고 행복했던 한 달간의 실습 생활을 돌이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 버리기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주요섭

매일 아침 실습을 시작하기 전 저만의 작은 의식이 있습니다. 바로 길 건너 카페에서 커피를 사오는 것입니다. 20분 정도 일찍 출근해 그날의 필요한 문서들을 정리하고 자리를 정돈한 후에 커피를 사러 나가는 길이 저에게는 참으로 소중한 시간입니다. 길 건너 카페를 다녀오는 시간은 대략 10분이 소요됩니다. 그 시간동안 저는 걷고 신호를 기다리고 음료를 주문하고 다시 걷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아침에 이 10분의 시간은 마음을 정돈하고 하루를 준비할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일을 할 때 실수가 잦은 편입니다. 긴장을 쉽게 하고 당황하면 머릿속이 하얗게 지워지곤 합니다. 그래서 쉬운 일도 어렵게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긴장은 모두 잘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고 싶은 욕심에 부담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여유 시간을 갖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사는 10분의 시간이 바로 이 잘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매일 저녁 일지를 쓸 때도 잘 쓰고 싶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한참을 망설이기도 합니다. 3주차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첫 마디를 매기 어렵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담고 느낀 것들을 곱씹어서 기록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인 것 같습니다.

독거어르신 가정방문 프로그램에서도 그랬습니다. 두 번째 방문에서는 첫 회기보다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에 괜히 조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행할 활동을 생각하고 질문지를 거듭 수정했습니다. 최대한 어르신 말씀에 경청하려고 했지만 계속 활동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께 집중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청소년 봉사 프로그램에서는 결과에 대한 걱정이 들었습니다. 조금의 성과라도 내야 하지 않을까 싶었고 그게 잘 기획한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과정이 중요하지만 결국은 결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잘하고 싶다는 생각은 올바르고 마땅한 마음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항상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잘하고 싶다는 욕심 속에 숨겨져 있는 허영심이 사람의 진솔함을 가리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는 당사자에게 진실함과 정중함으로 다가가는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를 잘하고 싶은 욕심이 커지다보면, 사람과의 관계는 보이지 않고 기술과 지식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솔직한 기록을 하지 못하고 당사자보다 서비스에 집중을 하며 과정보다 결과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욕심을 비우기 위해서는 언제나 여유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커피를 사는 10분의 시간처럼 프로그램에서도 이와 같은 여유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사자와의 관계에도 마찬가지로 조급한 마음을 돌아보고 진중하고 겸손하게

당사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여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습이 끝나가는 시점에 잘하고 싶은 마음을 버리자는 말이 조금 우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를 배워갈수록 거둬서 고민하게 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좋은 마음이 언제나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니 말입니다.

마땅함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진솔한 마음으로 임하고 싶습니다. 바쁠수록 여유를 만들어내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실습의 마지막까지 이 다짐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이 아닌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주은서

실습을 시작할 때, 실습 기간이 아쉽고 짧게 느껴지도록 늘 최선을 다하는 실습생이 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길수도, 어떻게 보면 짧을 수도 있는 그 한 달의 시간이 흘러, 어느덧 우리는 실습의 끝에 서있습니다. 언젠가 실습을 어떻게 보냈는지 돌아보며 저는, 그리고 우리는 이때를 후회하고 있을까요, 그리워하고 있을까요? 혹은 ‘그때 재밌었지’하고 미소 짓고 있을까요?

마음을 다하다

이번 주, 그동안 기획했던 사업이 시작되었고 사업 진행부터 마무리까지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진행하기 전, 저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특히 어르신에게 안부전화를 할 때나 어르신 댁에 가정방문을 할 때는 ‘어르신과 어떻게 라포를 형성해야할지’, ‘어떻게 대화를 이어나가면 좋을지’에 대해 고민하며 긴장이 되기도, 약간의 부담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사업이 시작되니 고민했던 시간이 무색하게 어르신들은 우리와 함께하는 순간에 집중하며 본인의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시간을 통해 오히려 저의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과의 안부전화와 점차 진행될수록 반갑게 맞이해주는 목소리도, 조곤조곤 본인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말투도, 시간 내서 전화해줘 고맙다고 말씀해주시는 그 한 마디도 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번 안부전화 시간을 통해

진심이 담기면 그 마음은 다 전해진다는 점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대화의 기술을 활용하기 보다는 어르신의 이야기에 경청하고, 진심으로 공감하는 마음과 태도가 더 중요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마음을 전하다

“그 어떤 일에 끝이란 없다는 생각도 들어. 그래, 그런 것 같아.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듯이 모든 일은 끝없이 계속되고 있어. 작별도 끝이 아니고, 결혼도 끝이 아니고, 죽음도 끝이 아닌 거지. 생은 계속되는 거지.”²⁾

끝은 또 다른 시작이기에 모든 일에 결국 끝이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는 이제 실습의 마지막을 맞이하지만 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번 실습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고, 한 명 한 명 모두 성장하였습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마음가짐과 실습의 의미를 가지고 실습에 임했으며, 서로가 함께이기에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실습을 하면서 아쉬움이 남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체력이 부족해 집중력이 떨어지기도 했고, 일을 하다 보니 지쳐서 소진이 오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라는 실습 기간을 되돌아보면 지치고 힘들었던 순간보다 보람과 성취를 느꼈던 기억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실습을 하면서 느낀 감정들 그리고 힘들 때 우리를 일으켜주고 위로해준 기억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혹여나 시간이 흐르고 사회에서 각자의 일을 하

2) 신경숙, 「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p.189, 문학동네, 2013

다가 이를 잇는다 하더라도 이 책을 통해 우리가 함께 공유했던 시간을 돌이켜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실습에 임했는지, 실습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배웠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각자 어디에 있든 간에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나는 정의 내릴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우리 스스로의 중심을 잘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2020년 7월 6일부터 7월 31일까지, 광장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만난 김태권 선생님과 기관의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동료 실습생들 덕분에 많이 성장했고, 참 행복했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책으로 선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에서 특별한 문장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최예은

실습을 엇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3주차가 지나 마지막 한 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실습 기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어떤 자세로 임했는지 자연스럽게 되돌아보게 됩니다.

실습을 시작하기 전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할지, 무엇을 배워갔으면 좋을지 혼자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다. 실습을 통해 졸업 후 방향을 어느 정도 정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에는 다양한 분야와 기관이 있고, 종합복지관에서의 경험은 아직 방향성을 정하지 못한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더불어, 실습을 하다 보면 다양한 지역, 학교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같은 사회복지를 전공하면서도 다른 삶을 살아왔기에,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많이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사회에 나가서도 연락하고 지내며 좋은 관계가 유지된다면 많은 힘과 위로가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실습에서 제 취업 방향에 대해 뚜렷한 방향을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를 바라보는 제 시각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도,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직업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실습 프로그램 중 8명의 당사자에

게 안부 전화를 해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얼굴도 보지 못한 당사자와 안부전화를 나눠야 한다는 어색함과 쑥스러움 때문에 어려움을 꽤나 겪었습니다. 그저 그렇게 안부 전화를 하던 와중에 실습이 얼마 남지 않아 종결에 대해 안내하라는 담당 선생님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한 분 한 분께 종결에 대해 안내해 드리는데 8분의 어르신 모두가 아쉬워하셨습니다. 한 분은 지금까지 너무 잘해왔으며, 앞으로 더 멋진 사회복지사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응원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3주 동안 일주일에 두 번씩 전화로만 이야기했는데도 제가 떠나는 것을 아쉬워해 주시고, 함께해서 아주 좋았다고 해주시는 당사자들을 보며 많은 감정이 오갔습니다. 어쩌면 사회복지사가 당사자를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좋은 동료들도 만났습니다. 각자의 개성이 뚜렷하지만 조화롭고, 모든 과정에 한 명도 빠짐없이 열심히 참여하는 동기들을 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각자 사회복지를 전공하게 된 계기들도 다르고, 이 전에 했던 경험들도 다 다릅니다. 이런 동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제가 하지 못했던 경험들에 대한 지식과 감정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진지함으로 실습에 임하는 모습들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체력적으로도, 심적으로도 힘들었던 실습 기간 동안, 9명의 동기가 없었더라면 끝까지 완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좋은 동료만큼, 좋은 사회복지사 선배님들을 만났습니다. 저보

다 몇 년 먼저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느꼈던 감정과 노하우들을 아낌없이 알려주시는 선생님들 덕분에 많이 배울 수 있는 실습이었습니다. 실습생들은 졸업이나 시험을 위해서라도 실습이라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복지관에서 실습을 진행하는 것은 필수가 아닙니다. 원래 진행하고 있던 사업들을 계속 진행하면서 실습생들 교육까지 한다는 것은 후배들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아니면 하기 힘든 일이지 않겠느냐고 감히 생각해봅니다. 선생님들의 애정 어린 마음 덕분에 실습생들도 잘 협력하며 뜻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장을 써내려갑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사건들 안에서 느끼는 감정과 경험들이 문장으로 만들어 지고, 그 문장이 쌓여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이번 실습은 제 인생에서 평생 기억될 특별한 문장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실습을 통해 만났던 모든 분의 문장에도 제가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제 문장에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행자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홍현기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 누군가와 같이 걷는 것, 누군가와 같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르막길을 오를 때, 걷다가 지칠 때 우리는 항상 포기를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는 아마 혼자였기 때문입니다. 강한 정신력과 체력이 있어도 혼자라는 생각이 들면 지치기 마련입니다.

실습 첫날 우리는 서로 어색해하며 그저 시간이 빨리 흘러갔으면 하는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흐르고 우리는 같이 밥도 먹고, 활동해야 하는 시간도 많았고, 서로서로 챙겨주는 날도 있었습니다. 우리끼리 농담도 하고, 서로 필기를 못 했던 부분을 알려주며,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실습하며 바쁜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매일 힘을 내고 출근을 하는 것이 바로 동료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도 ‘동료’, ‘동행자’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생토크’를 들으며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이 ‘나를 이해해주고 응원해주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이 사회복지사의 몫이다.’라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료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는데, 당사자는 더욱더 느낄지도 모르는 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부 전화 활동을 할 때의 나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아무리 피드백을 받아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던 저는 중요한 가치를 깨닫지 못해서인 것 같습니다. 의

무적인 태도, 폐쇄형 질문 저의 친구에게 그런 태도를 보였어도, 똑같은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치를 알아도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삶 속에서도 빗대어 보면, 진정으로 나를 이해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진심이 없다면 다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을 가지고 임했다면, 조금이라도 발전을 하였을 것입니다. 좋은 사람은 진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착한 사람, 웃긴 사람보다 진심 어린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진심 어린 동료, 진심 어린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가끔 ‘한결같다.’라는 소리를 말을 들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넌 하나도 변한 게 없냐?”, “여전하네” 하며 한결같다고 합니다. 그 친구들에게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진심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듣는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동료는 서로 이해해주고 응원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그저 같이 길을 가는 동행자가 아닌, 동반자가 되고 싶습니다.

종결에 가까워지는 우리들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황희원

사회복지 현장실습의 3주차는 그동안 했던 실습 활동들을 진행 하고 ‘이제 곧 종결이구나.’를 실감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지 않은 것 같았던 종결이 다가오고 첫 주와 달리 빠른 속도로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적응이 됨과 동시에 시간도 빠르게 흘러가 아쉬운 마음이 드는 한 주였습니다. 동일한 활동이 유달리 많았던 이번 한주는 반복되는 경험 속에서 점점 발전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폭염기 어르신 모니터링 연락은 첫 주부터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첫 주는 질문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 많았던 시간이라면 3주차는 어르신의 성향을 파악해 볼 수 있었고 어떤 대화를 진행해 갈지 예측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 긴장보다는 조금은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활동에 임할 수 있게 되어 성장하는 나 자신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 어르신의 말씀 중에 “사회복지사는 최고의 직업이고 좋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라는 말씀을 듣고 그동안 진행했던 실습 활동에 대해 보상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당사자로 인해 사회복지사도 감동을 받고 용원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의 그 한마디는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지만 어려울 것

같던 관계형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한마디였습니다.

관계형성에 대해 배워가는 시간은 안부 전화뿐만 아니라 ‘행복으로의 여행’을 하면서 더욱 와 닿았습니다. 처음엔 사진 찍는 것을 거부했던 어르신들이 긍정적 관계형성을 통해 누구보다 밝게 미소를 짓는 어르신들의 모습은 실습이 끝나고 나서도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잠깐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라도 더 조언해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함과 동시에 마음속 공허함을 달래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행복으로의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었지만 그것을 듣고 있는 우리들이 진정한 행복으로의 여행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짧은 만남이지만 그 속에서 느낀 생각과 말씀들을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둘 것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기관이 휴관 되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었지만 이번 3주차는 기관 내부에서 어르신들을 맞이하고 스마트폰 교육을 실행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활동하기 전에는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기능을 익히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을 했지만 예상했던 것과 달리 수준 높은 스마트폰 기능을 원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시대가 변하면서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가 아닌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그에 발맞춰 기술을 습득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의 변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경험을 통해 얻는 배움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글로 배우는 수업이 아닌 경험을 통해 배우는 수업은 실습 활동을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는 일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생토크’를 들으면서 공감되었던 말은 주위에 어떤 사람 있느냐에 따라 혹은 힘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삶의 방향성이 달라진다는 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지지하는 사람이 옆에 있기 때문에 잘 성장하고 별다른 일탈 없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힘들 때 누군가의 응원과 지지가 없었더라면 저 또한 반항을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자라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번 실습을 하면서도 지지해주는 실습생들이 있고 배움을 줄 수 있는 슈퍼바이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 영향을 받고 성장해 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종결까지 한주가 남았지만 남은 한 주 동안 배움을 얻고 실습생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보는 한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습이 끝나고 나서도 실습생들과의 인연은 계속될 것이고 앞으로 서로가 힘이 되고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나아갈 것입니다.

IV. 너에게, 내가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박영탁 · 백다을 · 송아영 · 이민지 · 이순호
주요섭 · 주은서 · 최예은 · 홍현기 · 황희원

사려 깊은 동료, 최예은 선생님에게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박영탁

처음 만나 어색해하던 시간이 흘러 어느덧 5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습니다.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며 그저 업무적으로 다가가기보다 사람 대 사람으로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싶었던 마음에 친근하고 편하게 말한다는 것이 예은 선생님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을지 뒤늦은 걱정이 듭니다. 사실 저는 팀으로 협동하여 무언가를 진행해야 하는 것을 꺼리는 사람입니다. 대학교에서 수많은 조별과제를 겪어오면서 온전히 모두가 협동적으로 임하며 순탄하게 진행되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에 예은 선생님에게도 불신하는 마음이 조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과는 달리 제가 여태까지 봐왔던 그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협조적인 선생님의 모습에, 불신하던 마음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예은 선생님과 활동 경험은 제가 갖고 있던 일반화의 오류를 깨주는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 생각해보니 업무적인 얘기뿐 아니라 개인의 사담, 고민까지 나누는 모습을 통해 실습이라는 환경 속에서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서로가 된 것 같아 내심 뿌듯했습니다. 다양한 강의나 피드백에서 항상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는 의지할 수 있는 동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저에게는 예은 선생님이 그러한 존재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동체 생활인만큼 자기 자신보다 팀을 더 생각하며 밝게 분위기를 조성

하는 힘, 그것이 예은 선생님의 가장 큰 강점이라 생각합니다. 밝은 겉모습과 달리 속으로는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여린 마음을 갖고 계신 예은 선생님, 때로는 혼자 고민하기보다 저에게라도 털어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항상 지지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니 편하실 때 언제든지 말씀해주시면 물심양면으로 도와드리고 같이 고민하고 공감해드리겠습니다.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선생님과 같이 지낼 수 있어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저 또한 예은 선생님에게 힘이 되는 존재가 되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은 선생님!

극과 극의 일 메이트, 동료 박영탁 선생님에게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최예은

처음 짝꿍으로 정해지고 슈퍼바이저 선생님을 정할 때, 각자 생각하고 있던 슈퍼바이저가 달라서 당황했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왜 그걸로 당황하나 싶지만, 불화와 의견 대립을 만 들면 안 된다는 생각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의견 대립은 당연한 부분인데 말입니다. 그 후 행복으로의 여행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처음 회의를 했을 때, 생각보다 합이 잘 맞아서 놀 랐습니다. 영탁 선생님은 회기별 진행할 아이템을 구상해오고, 저는 관계형성을 위한 질문 리스트를 작성해왔던 기억이 납니 다. 부분을 나누지 않아도 각자 알아서 준비해온 덕에 빠르게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의 문을 확 열고 빠르게 친해졌던 것 같습니다.

일 할 때도 생각이 많아 하나 시작하기 전부터 돌다리를 수천 번 두드리는 저와는 달리, 일 할 때도 누구보다 빠른 속도를 자랑하며 순식간에 일을 해치우는 덕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상황을 직관적으로 판단하며 시행착오들을 줄이고, 많은 아이디어를 떠올려 다른 동료 실습생들의 피드백을 적극 수용해 다른 대안을 생각해 내는 모습을 보며 많이 배웠습니다. 매시간 마다 질문을 하는 것도 실습 계획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하지만 그 또한 열정이 없이는 할 수 없으므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후 다시 만나게 된다면 열정 가득한 사회복지사가 되어 일하고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종종 받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다소 냉소적일 수 있는 모습이 오히려 긍정적인 저와는 달라 더 좋은 시너지를 발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했을 때 잘 들어주고 애정 어린 말들로 공감 해줘서 금방 털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극과 극의 성격으로 어찌 보면 맞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의 팀워크는 오히려 극과 극이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실습 프로그램들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먼 미래에 다시 또 함께할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고맙습니다.

알면 알수록 마음이 가는, 동료 주은서 선생님에게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백다을

알면 알아갈수록 마음이 가는 주은서 선생님!

하고 싶은 말이 정리가 되지 않아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씩 기록해 가보려 합니다.

실습 첫 날, 우리는 우연히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 대로 같은 팀이 될 줄은 몰랐지만요. 제가 열심히 은서 선생님에게 말을 걸었지만 낯을 가리던 은서 선생님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은서 선생님과 팀으로 활동했던 한 달은 잊지 못할 즐거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은서 선생님에게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행복으로의 여행 프로그램으로 어르신 댁에 방문했을 때에도 어르신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대하는 모습에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은서 선생님과 함께 할 때 허물없이 편했던 이유도 선생님은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고 진실한 태도로 대하여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곁에 있으면서 어떤 성격의 사람이든 포용하는 자세를 갖추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내면적으로 낯을 가리는 편인데 은서 선생님 덕분에 마음을 쉽게 열었고 즐겁게 팀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두가 그렇듯, 은서 선생님도 사회복지의 분야가 아니더라도 여러 갈림길 앞에 서서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은서 선생님이라면 충분히 은서 선생님만의 길을 만들어 나

갈 것이라 믿습니다. 은서 선생님에게는 자신의 의견을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재치가 있고, 꼼꼼하게 살피는 등 여러 강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람을 존중하는 소중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들레의 작은 꽃씨가 퍼지고 퍼져 새로운 꽃을 피우고 꽃밭을 이루듯, 은서 선생님의 배움에 대한 노력과 자신에 대해 고민하던 시간은 보이지 않지만 사라지지 않는 가치 있고 단단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한 달 동안 고마웠습니다.

우리의 다음의 봄을 기대하며, 동료 백다을 드림.

부드러운 미소 속 단단함을 가진 동료, 백다을 선생님에게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주은서

동료 실습생들과 처음 만나 서로 서먹해 하던 실습 첫 날이 생 각납니다. 늦게 도착했던 저는 남아있던 한 자리에 앉았고, 어 색한 분위기에 마스크 위로 조용히 눈만 굴리고 있었습니다. 그 때 제 옆에 앉은 실습생 한 분이 먼저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긴 장했었는지 제가 어떻게 대답했고, 우리가 어떤 대화를 했는지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덕분에 어색함이 조금 풀릴 수 있었 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날 종례시간, 앞으로의 실습기간동안 같이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할 팀을 선정하였습니다. 저는 제 옆 에 앉아있던, 실습 첫 날 저의 어색함을 풀어줬던 백다을 선생 님과 같은 팀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다을 선생님은 저에게 이 날 자신이 먼저 말 걸기까지 많은 용기를 낸 것이라 고 말씀해주셨고, 그 말을 듣고 나니 먼저 말 걸어주던 다을 선 생님의 모습이 기억에 많이 납니다.

우리는 같이 ‘행복으로(老)의 여행’ 사업을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금방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같이 사업을 진행하며 저는 백다을 선생님이 섬세함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종종 사소한 부분을 놓쳐서 평소 잦은 실수를 하고는 했 었는데 저의 그런 면을 다을 선생님이 채워주었습니다. 다을 선 생님 덕분에 저희가 보다 섬세하고 꼼꼼하게 사업을 준비해나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다을 선생님은 용기 있는 사람임을 느꼈습니다. 본인은 실습 첫 날 저에게 말하기까지 많은 용기를

낸 것이라고 말했지만 제가 느낀 백다을 선생님은 이미 용기를 가지고, 적절한 상황에 그 용기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실습에 임하는 것이 아닌 작은 부분도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여 스스로 드는 의문점에 대해 질문하는 모습, 다른 사람이 쉽게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번쩍 손들고 말하는 모습을 보며 다을 선생님의 용기는 정말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백다을 선생님이 부드러운 미소 속, 단단함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속도로 나아갈 수 있는 내면의 단단함을 가지고 있음을 같이 실습하며 많이 느꼈습니다. 세상의 변화는 잘나고 목소리 큰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이렇게 제자리에서 성실히 자신의 삶을 일구어나가는 사람들에 의해 변화해온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으로, 다을 선생님에게 실습 한 달 동안 정말 고마웠고 고생 많았다는 말과 함께, 늘 응원하고 있으니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을 오롯이 이루어가길 바란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진중한 동료, 주요섭 선생님에게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송아영

요섭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실습을 마무리하며 글로 선생님에게 마음을 전하려니 어색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합니다. 처음에 반장과 부반장에 이어 짝꿍이 되었을 때 정말 신기했습니다. 조용하고 얌전해 보이는 요섭 선생님의 모습에 친해질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서로 아옹다옹 장난도 많이 치고 친해졌네요. 선생님이 반전의 성격을 가졌을지 누가 알았을까요. 이제는 선생님의 본모습들 다 알아버렸으니 다음에 또 만나면 그때는 조용하게 말고 밝게 인사해주세요.

요섭 선생님은 섬세한 성격을 가졌고 배려가 몸에 배어있는 멋진 사람 같아요. 그리고 저는 실습 시간 동안 요섭 선생님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누린 것 같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마다 챙겨주시고 배려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항상 챙김을 받았던 것 같은데 당연하게 매일을 만났던 선생님을 못 본다는 생각을 하니깐 나도 좀 많이 챙겨줄 걸 그랬다는 후회가 들어요. 아무튼, 선생님과 장난칠 수 없다는 것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정방문 못 간다는 것도 이래저래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우리가 사회복지현장에서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함께 배웠던 지난 한 달의 시간은 정말 소중한 시간으로, 우리의 관계는 정말 소중한 동료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한 달을 지켜본 요섭 선생님은 존재 자체로 너무 멋있고, 가치로운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기에 어디에서 무엇을 해도 잘할 수 있을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디서든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과 함께해서 즐겁고 감사했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달려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선생님을 위해 기도할게요! 우리 종종 연락도 하고 나중에 또 만나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동료 송아영 선생님에게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주요섭

처음 선생님과 친해졌던 순간은 아마 코로나 대응 프로그램 대외홍보 때였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가치관과 살아왔던 이야기를 들으며 삭막했던 분위기가 자연스레 풀렸습니다. 선생님과 의 대화는 제가 실습에서 처음으로 경험한 관계형성의 경험이었습니다. 일면식이 없던 사람과 동료가 되어 가는 과정은 업무시간이 아닌 개인적인 대화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동료 실습생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나누었던 대화였기 때문입니다.

그 때 나눈 대화를 통해 아영 선생님이 사람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과 어울리기 좋아하고 사람에게 에너지를 얻는다는 말이 혼자 있기 좋아하는 저에게는 새로운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래의 사회복지 현장을 꿈꾸며 지역주민과의 관계형성이 걱정이라는 저의 말에도 오히려 자신 있다며 긍정적으로 기대하시는 선생님의 모습을 볼 때, 저와는 다른 강점을 가진 아영 선생님과 팀이 되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안타까운 마음과 공감의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성을 다한 관계가 틀어지고 금이 생기는 과정이 얼마나 큰 상처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행복으로의 여행’을 통해 만났던 어른신께도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선생님의 태도가 배려있게 느껴졌습니다. 무턱대고 달려들 저에게 제동을 걸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영 선생님의 실천 기록 중 ‘비슷하지만 다른, 다르지만 비슷한 꿈을 나누는 것.’³⁾이라는 말이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관계형성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다름을 인정하기까지 선생님 삶 속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겠다 싶었습니다. 그 값진 깨달음이 이번 실습에서도 잘 녹여졌다고 생각하고 그렇기에 더 의미 있는 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의 삶에서도 언제나 사람을 향한 소중한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아픔을 공유하는 사회복지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계에 아픔이 찾아와도 거뜰히 이겨낼 수 있는 담담한 마음을 잃지 않기를 응원합니다.

3) 2020 광주종합사회복지관 하계방학 현장실습 기록, 「민들레」

가장 기대되는 민들레, 동료 홍현기 선생님에게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이민지

실습 첫 날, 제비뽑기로 팀을 고를 때 ‘광장복지관’의 다섯 글자 중 ‘복’을 뽑은 사람으로 저와 함께 어색하게 손들었던 현기 선생님이 기억납니다. 실습기간동안 함께 많은 활동을 하면서 서로를 깊게 알게 되었고,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줄 수 있는 진정한 동료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현기 선생님은 정말 많은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현기선생님만이 가지고 있는 유쾌한 입담으로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걱정과 조심성이 많은 저에게 있어서 현기 선생님의 믿음과 확신으로 가득한 피드백은, 실습 중의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기선생님은 배려가 많은 사람입니다. ‘행복으로(老)의 여행’ 프로그램을 위해 가정방문을 할 때에도, 멀미가 심한 저를 걱정해주고 신경써주셔서 프로그램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활동 중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세한 배려를 해주시는 현기 선생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팀으로 함께 했던 한 달이라는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훗날 ‘홍현기 사회복지사’로 성장하였을 때, 광장종합사회복지관에서의 실습이 대학생 시절 중 가장 의미 있었던 경험으로 기억될 수 있을 것이라 믿

습니다. 그 가치 있는 매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고, 감사했습니다.

“현기선생님. 우리, 멋진 민들레가 되어 다시 만나요.”

웃음이 많은 동료, 이민지 선생님에게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홍현기

제비뽑기를 통해 만났지만, 민지 선생님과 저는 서로의 성향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래서인지 처음에는 잘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지 선생님이 저를 배려해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며 활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희가 비슷했다면, 서로 활동한 데에 있어 많은 난항을 겪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하면 서도, 서로 달랐던 점이 제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 민지 선생님은 답답하고 그랬을 것 같아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도 민지 선생님 덕분에 즐겁게 활동했던 기억들이 많이 있어 감사합니다.

민지 선생님의 유쾌한 모습들을 느끼고 있고, 정말 매력도 넘치고, 강점이 많다는 생각도 들어 배우고 싶은 점도 많습니다. 민지 선생님의 처음 했던 말들이 기억이 남습니다. 실습하면서 실습생들과 친해지고 싶고, 잘 지내고 싶다는 말들이 생각납니다. 이제 실습이 막바지에 다가왔는데, 민지 선생님의 그 마음이 지금 그렇게 느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동료로서 마지막 남은 순간까지 노력해보겠습니다. 그 말은 저도 지키고 싶고, 마지막이라는 말보다 실습생들끼리 마지막이 없는 친한 관계가 되고 싶습니다.

커트 코베인이라는 음악인은 “나는 오늘 친구들을 찾아서 너무

행복하다. 그들은 내 머릿속에 있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민지 선생님의 추억에도 그렇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 세심하게 배려하는 동료, 이순호 선생님에게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황희원

순호 선생님과 한 팀이 된 지 엿그제 같은데 어느덧 실습에 마지막이 다가오네요. ‘행복으로의 여행’ 프로그램을 하면서 어려움도 있었고 보람되었던 일도 많았지만, 순호 선생님과 함께 라서 어려움도 극복하고 프로그램 진행도 잘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자신이 아닌 상대방을 배려하고 위해주는 마음이 사회복지사라는 직업 속에 녹아들어 훌륭한 사회복지사로 성장해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알게 모르게 뒤에서 실습생들을 하나하나 챙겨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들을 실습하는 기간 동안 느낄 수 있었어요. 자신이 해야 할 일도 많을 텐데 이렇게 뒤에서 세심하게 챙겨주는 모습이 항상 대단하고 생각했고 늘 고마웠는데 이렇게 글로 남길 수 있어서 참 다행이네요.

3주라는 시간 동안 한사람에 대해 모든 걸 알기에는 어렵지만, 제가 생각하는 순호 선생님은 매사에 적극적이고 배려심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사회복지 실습에서 누구보다 열정을 갖고 질문도 적극적으로 하는 순호 선생님의 모습을 보며 저도 배워야 할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열정적인 순호 선생님과 팀이어서 저도 그 영향을 받아 열정적으로 프로그램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대충하려고 하지 않고 해야 할 일보다 더 높은 성취도를 갖고 임하는 자세는 팀원인 저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항상 고맙고 앞으로도 열정을 갖고 좋은 사회복지

지사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가면 좋은 결말을 맺을 수 있을 겁니다! 순호 선생님의 열정과 배움의 의지가 있다면 이루고자 하는 꿈을 꼭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뒤에서 응원할 테니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달려 나갔으면 좋겠어요. 실습은 4주차가 마지막이지만, 우리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실습하는 동안 고생 많았고, 앞으로 남은 실습 기간에도 함께 힘내서 잘 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빛나는 별 중 가장 빛나는 동료, 황희원 선생님에게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이순호

희원 선생님 우선 이번 실습을 하면서 같은 조가 되어서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으로(老)의 여행’을 같이 하며 선생님의 공감 능력과 그 속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계신 모습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르신 댁의 가정 방문이 너무 걱정이 되었지만 선생님의 안부 전화와 어르신 댁에서의 나오는 진실 된 감정들이 어르신을 바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은 항상 개인주의라고 말씀들을 하셨지만, 저희는 1, 2회기를 통해 어르신이 사실 많은 대화를 하고 싶으시고 정을 그리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혼자서 이 많은 것들을 이끌어 내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활발함과 밝은 능력은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에게도 좋은 영향을 분명히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어서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힘이 들고 어려운 분들과 안부 전화를 하는 와중에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저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실습생들 모두 안부 전화를 가장 힘들어했지만 선생님의 사례가 가장 힘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말은 ‘어렵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옆에서 누구보다 경청을 하며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어주는 모습이 누구보다

배려 깊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주간 짧은 시간이었지만 옆에 있으면서 책임성, 공감 능력, 활발함 등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장점을 누구보다 실습에서 가장 잘 활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 다른 실습생들도 분명히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있어 선생님과 함께 하는 시간들은 감성적으로 체력적으로 가장 많은 것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어르신과의 만남도 우리 함께 잘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V. 다음의 봄을 기대하며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김태권

우리가 공유한 시간, ‘함께 한 봄날을 되새기며’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김태권

우리 모두는 흘러가는 시간을 항상 누군가와 ‘공유’하며 살아갑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시간’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함께 공유합니다. 이유와 구실은 다양할지 모르나, 누군가와 만나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서로의 시간을 공유하는 일은 어느 순간 하나 헛되게 여겨지는 법이 없습니다.

도종환, ‘벗 하나 있었으면’

마음이 울적할 때 저녁 강물 같은 벗 하나 있었으면
날이 저무는데 마음 산그리메처럼 어두워울 때
내 그림자를 안고 조용히 흐르는
강물 같은 친구 하나 있었으면

울리지 않는 악기처럼 마음이 비어 있을 때
낮은 소리로 내게 오는 벗 하나 있었으면
그와 함께 노래가 되어 들에 가득 번지는
벗 하나 있었으면

오늘도 어제처럼 고개를 다 못 넘고 지쳐 있는데
달빛으로 다가와 등을 쓰다듬어주는
벗 하나 있었으면
그와 함께라면 칠흑 속에서도 다시 먼 길 갈 수 있는
벗 하나 있었으면

도종환 시인의 ‘벚 하나 있었으면’이라는 시를 보면, 실습생 이민지 선생님이 기록해주신 ‘우리 모두의 첫 걸음’이라는 기록 제목이 문득 떠오릅니다. 한 명의 열 걸음보다, 열 명의 한 걸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의미도 크게 와 닿습니다. 힘들고 고된 실습 과정들이었을지 모르 그 시간 속에서 한 걸음씩이라도 동료와 함께 의지하며 뜻 있게 보내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옆에서 계속 함께하였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미 서로에게 소중한 ‘벚’이 되어 의미 있는 과정들을 이루어 온 이 시간들은 어느 순간 하나 가벼이 여길 것이 없으며, 소중한 동료와 함께였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모두의 ‘봄날’이 되었을 것임을, 기대합니다.

지난 한 달간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실습생 선생님들에게 많은 배움이 있었던 만큼 그 시간이 참 힘들고 때로는 치열하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실습생 선생님들이 매 순간에 진정성 있게 임하고자 하는 성숙하고 뜻 깊은 모습, 어려운 것들에 오히려 도전해보며 능동적으로 배움을 얻어가려는 모습, 사회사업 실천의 가치를 배우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소통하는 모습 등 어느 것 하나 가벼이 여길 수 있는 순간들이 결코 없었습니다. 지난 한달 간 곁에서 함께 성장하였고, 시간을 공유하였던 동료이자 선배 사회복지사로서, 10명의 실습생 선생님들이 걸어온 지난 모든 시간들이 정말 ‘화사한 봄날’이었음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다가올 우리의 봄날’을 기다리며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김태권

‘민들레, 바람에 날려 또 다른 민들레를 피어오르게 하는 그날까지’

선생님들이 직접 만든 ‘민들레’라는 현장실습 기록집 제목과 그 의미를 처음 들었을 때, 매우 깊이 있게 와 닿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들이 선생님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그리고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어떠한 기대감을 품고 있는지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와 닿는 감정, 생각들을 글로 정리하여 전하기란 쉽지 않지만, 저 또한 선생님들의 ‘봄날’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래와 같이 기록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감사한 마음’부터 전하고 싶습니다. 서로가 같은 시간을 공유하고 있더라도 그 안에서 느끼는 바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지난 이 실습의 시간들이 ‘봄날’을 품은 순간들로 기억될 것임을, 더불어, ‘다가올 봄날’을 기대하는 마음도 함께 생각할 수 있었음을 표현해주시어, 동행해온 시간 속의 동료로서 깊은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나가버리면 오지 않을 오늘 이 순간에, 전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잊지 않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진심을 담아 ‘응원하는 마음’도 정중하게 전합니다. 실습생 선생님들의 기록 중 저도 동참하기로 한 부분인 에필로그, ‘다음

의 봄날을 기대하며’라는 제목이 기록을 마무리하기에 아주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실습과정 속 10명의 선생님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단 하루도 기대감을 갖지 않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바쁘고 힘들었을지 모를 과정들 속에서도, 매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진정성 있게 임하는 선생님들의 모습들을 보며 동행 하였던 사회복지사로서 그러한 마음을 느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리고 뜻있는 마음으로 실습과정에 임하여 왔던 선생님 모두를 진심을 담아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가올 봄날을 여러분들과 함께 기다리고 싶습니다. 짧고도 긴 한 달이라는 현장실습 기간의 소회를 기록 몇 마디로 표현을 하자니, 공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만큼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러나 함께 시간을 공유하였던, 그리고 미래의 현장의 동료로서 우리 모두가 동행하였던 이 시간을 발판삼아 맞이할 여러분의 봄날을 저 또한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서로의 위치로 돌아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그 마음은 변치 않을 것임을 정중하게 기록으로 담아 전합니다.

민들레

바람에 날려 또 다른 민들레를 피어오르게 하는 그 날까지,

‘2020 광장종합사회복지관 하계방학 사회복지 현장실습 기록’

지은이 박영탁 백다을 송아영 이민지 이순호

주요섭 주은서 최예은 홍현기 황희원

인 쇄 2020년 7월 29일

펴낸곳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엮은이 김태권

연락처 02-2201-1333

홈페이지 www.gj.or.kr

※ 광장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www.gj.or.kr) 등 온라인 상 PDF 파일로도 공유될 예정입니다. 출처를 밝혀주신 후 파일을 공유해주셔도 좋습니다. 단, 본 기록물을 다른 도서 및 자료 등에 활용 시, 사전에 반드시 본 기관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